

2회

2017 6월 평가원

정답

1. ㉓	2. ㉑	3. ㉕	4. ㉑	5. ㉒
6. ㉔	7. ㉕	8. ㉕	9. ㉒	10. ㉓
11. ㉒	12. ㉑	13. ㉕	14. ㉓	15. ㉑
16. ㉓	17. ㉕	18. ㉓	19. ㉓	20. ㉕
21. ㉕	22. ㉓	23. ㉒	24. ㉑	25. ㉔
26. ㉓	27. ㉔	28. ㉔	29. ㉑	30. ㉔
31. ㉓	32. ㉒	33. ㉔	34. ㉓	35. ㉔
36. ㉔	37. ㉓	38. ㉕	39. ㉑	40. ㉕
41. ㉓	42. ㉕	43. ㉒	44. ㉕	45. ㉒

영역별 평균 정답률

영역	정답률
종합	69%
화법+작문	89%
문법	50%
독서 (비문학)	61%
문학	76%

등급컷

등급	원점수	비율(%)
1	90	4
2	83	11
3	74	23
4	65	39
5	54	59
6	41	77
7	28	89
8	19	96

오답률 TOP 7 문항

순위	문항 · 영역	제재	평가원 4개년 중
1위(66%)	23번 인문	유비논증	4위
2위(63%)	12번 문법	고전탐구	7위
3위(59%)	13번 문법	음운변동	8위
4위(58%)	18번 과학	인공 신경망	10위
4위(58%)	19번 과학	인공 신경망	10위
6위(43%)	41번 현대소설	삼대	26위
7위(41%)	11번 문법	고전탐구	28위

※1~2, <강연>

1. <화법>

#말하기 방식 #사례_예시 #분석_구분_분류 #질문의 유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4%	①	②	③	④	⑤
	3%	1%	94%	1%	1%

◆정답 ③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
 (화면의 '작품 2'을 가리키며)~
 (화면의 '작품 3'을 가리키며)~

⇒화면의 작품 1,2,3이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고 이를 각각 문단별로 분석하면서 강연의 중심 내용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문에 문단별로 작품 1, 2, 3이 친절하게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띈다. 이것만으로도 5개의 선지 중 사례 혹은 예시와 관련 있는 ③이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 여러 개의 나열 → (정답 선지: 사례 혹은 예시와 관련)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 ㄱ.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ㄴ.예시: 예를 들어 보임.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는 않다. 사례와 예시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2016 A형 6번 문제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 정답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분석 vs 구분 vs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분석: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곤충을 머리,가슴,배로 쪼갬)
- ㄴ.구분: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과일을 사과,배,감 등으로 나눔)
- ㄷ.분류: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사과,배,감 등을 과일로 묶음)

☞비슷해 보이는 분석과 구분의 차이점은 분석된 개체(머리, 가슴, 배) 자체를 곤충이라 할 수 없으나 구분된 대상들(사과, 배, 감)은 자체를 과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하고 헛갈리는 어휘는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충 대충의 습관은 결국 점수도 대충 받게 된다.

◆오답 풀이

①
 ⇒ 초반에 강연의 목적(타이포그래피 소개)을 밝히기는 했지만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통한 것은 아니다. 강연을 하게 된 계기(진로 축제에 초청 받음)와 함께 강연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혹시, [3문단]의 '이것은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을 텐데요,~'는 강연자와 청중이 각각 경험하는 흔한 일이지 함께 겪은 공유한 경험은 아니다.

▶화법에서의 공유 경험: 청자의 흥미 유발 효과가 있음!

②
 ⇒통계 자료는 없다.

♣선지에 통계 자료에 관한 항목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숫자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 이 문제에서는 작품의 예시를 나타내는 숫자 이외에는 별다른 숫자가 없어 ②가 적절하지 않음을 신속히 판단해 볼 수 있다.

④
 ⇒강연에 소개된 직업은 타이포그래피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 표현을 나타내는 직업들의 특징을 서로 대비한다는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청중이 강연자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없다. [끝문단]의 '㉠쯤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는 강연자가 청중에게 강연 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다양한 질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ㄱ.상대에게 정보 요구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 ㄴ.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
- ㄴ.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 ㄷ.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이건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
- ㄹ.상대의 호기심 유발 (결과가 궁금하시죠?)

★2016 수능 '질문' 관련 문제의 정답 사례!

[2016 수능 A 1번 문제의 정답]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2016 수능 A 3번 문제의 정답]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2016 수능 B 7번 문제의 정답]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2016 수능 한 시험에서 '질문' 관련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었고 그것도 모두 정답 선지로 배치되었다!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에 질문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면 높은 정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하자!

2. <화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8%	①	②	③	④	⑤
	88%	2%	1%	2%	7%

◆정답 ①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1)가독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가독성: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1)하였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1)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1)를 고려한 조형적 기능이기 때문에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상관없다는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④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이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1)크면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화면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을 그려 넣고 사선의 위쪽을 2)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 작품 1은 글자의 색이 아닌 크기1)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작품 2는 글자의 색을 검은 색2)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글자의 색을 화려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면의 '작품 3'을 가리키며)~이것은 1)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신선한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3은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한1) 작품이기 때문에 글자의 의미 전달을 하고 있고 있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3~5, <토의>**

3. <화법>

#1항목 후순위 #토의_토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8%	①	②	③	④	⑤
	2%	2%	2%	6%	88%

◆정답 ⑤

학생2: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 ㉠<발표와 질의응답>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 아닌 **각자 읽는** 방식이다.

◆오답 풀이

①

학생4: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구심점, 주도적)**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 ㉠<발표와 질의응답>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있기에 ①은 적절하다.

②

학생5: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 ㉡<자유 토의 방식>은 준비 과정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책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동일하다.

③

⇒ 지문을 굳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질의응답>은 묻고 답하기라는 의견의 상호 교환 작용이 당연히 있는 것이며 ㉡<자유토의>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토의 vs 토론에 대해 알아보자!

ㄱ.토론: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확실한 대립점이 있는 논제이어야 한다. (교복 착용의 의무화해야 하는가? 동성간의 결혼 합법화 필요한가?)

ㄴ.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협력적 논의이다. (불우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취업난을 해결할 정책은 무엇인가?)

④

학생2: 매주 1)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학생3: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2)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둘 다 정해진 분량을 읽어 오는 것1~2)이기 때문에 선지 ④는 적절하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 ㉡, ㉢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 혹은 ㉡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염두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 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화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6%	96%	1%	1%	1%	1%

◆정답 ①

[A]: 그런데 1)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2)<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A]는 특정 ‘발표와 질의응답’ 방안의 단점1)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인 ‘자유 토의’의 장점2)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A]는 특정 방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이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 A 이후 B → (부적절 선지: B 이후 A)

③

⇒[A]는 특정 방안의 장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을 언급한 후 이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④

[B]: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1)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B]는 방안의 한계1)는 있지만 그 방안의 의의는 없다.

⑤

[B]: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1)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B]는 방안의 단점만 언급1)되어 있으며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선지에 대상의 장, 단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대부분 장점과 단점 중 어느 하나는 지문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절하지 않는 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하고 문제를 풀자!

(2016 수능 A 3번 문제)

② 발표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발표 대상의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어 적절하지 않은 정답 선지에 해당함.

5. <화법>

#공통 선지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3%	91%	3%	3%	0%

◆정답 ②

학생1: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1)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학생들: 2)(모두 동의를 표한다.)

⇒[C]는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1)을 전제로 특정 방안[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을 실행하는 데에 합의2)하였다.

◆오답 풀이

①

학생1: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1)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큰 계획만 있을 뿐 세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점을 개선1)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세부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결정된 방안은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삼의 방안이 아닌 이미 논의 된 방안 중에서 선택 결정한 것이다.

④

학생1: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1)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 특정 방안을 ‘유연하게 실행한다는 것’에 합의 하는 것은 맞지만 소수 의견의 존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개선1)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 즉 문제점 개선에 대한 것은 언급 되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것은 없다.

*전문가의 예시: 교수, 학자, 관련 일 경력자 등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닭은 풀)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②, ⑤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공통된다.

②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실제 정답)

⑤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 없이 ②,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풀 선지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6~7, <자기소개서>

6. <작문>

#조정 방안 #소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2%	3%	1%	92%	2%

◆정답 ④

동생: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1)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대.

누나: 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2)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이런 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 해설의 대상이 초등학생이기1) 때문에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누나의 조언대로 초등학생과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2)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다음 지문의 내용에 따라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다.

누나: (메모를 확인한 후) 음, 1)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목적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아? 단순히 학교생활을 궁금해할까?

동생: 해설 도우미를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아, 2)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

*1~2) →(선지 ①의 조정 방안)

누나: 그럼 3)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공고문의 내용을 잘 고려해 봐.

동생: 4)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대. *3~4) →(②의 조정 방안)

누나: 5)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이런 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③의 조정 방안)

동생: 음, 그러면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부장 활동, 나의 성장 배경을 쓰면 좋겠는데.

누나: 6)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 →(⑤의 조정 방안)

7. <작문>

#내용 구체화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4%	①	②	③	④	⑤
	4%	4%	3%	5%	84%

◆정답 ⑤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상황이다.

- A: (보조 교사+학업 병행)의 어려움
- B: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A, B는 서로 상관이 없는데 A의 경험을 통해 B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 교사+학업 병행)의 어려움은 문화 해설 도우미 선발자에게 오히려 감정의 요인이 된다.

- *국어 시험에 자주 등장함!
- ▶지문: 상관없는 A, B →(부적절 선지: A, B 상관있음)

◆오답 풀이

*나머지는 다음 지문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다.

동생: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1)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 대.

누나: 2)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1~2) →(①, ②의 구체화 방안과 관련)

동생: 음, 그러면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부장 활동, 나의 성장 배경을 쓰면 좋겠는데.

누나: 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

동생: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했던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발표 대회,→(③의 구체화 방안과 관련)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④의 구체화 방안과 관련)을 쓰면 되겠네. 그럼,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8~10, <기사의 개요와 초고>

8. <작문>

#분문 반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1%	①	②	③	④	⑤
	2%	1%	2%	4%	91%

◆정답 ⑤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솔숲이 위치한 시민 공원에서 열린다.→(㉠) 솔숲 개방 행사에는 우리 학교 상징물인 소나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재학생과 동문 선배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학교와 역사를 함께해 온 소나무들로 솔숲이 조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체육관을 지을 터에 이미 자리 잡은 소나무들을 옮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베어 버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학교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당장 베어 버리기보다는 몇 달만이라도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학생회에서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던 중 시민 공원에 소나무를 기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단 시민 공원에서조차 솔숲을 조성할 소나무가 필요하다며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반겼고, 솔숲의 터가 정리되는 대로 솔숲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우리 학교는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소나무들을 시민 공원에 기증하였다.→(㉣)

현재 우리 학교 소나무들은 새 보금자리인 시민 공원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소나무들은 학교에 있을 때처럼 건강하게 새 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공원에서는 예정보다 빨리 솔숲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5문단은 예정보다 빨리 솔숲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과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생략

9. <작문>

#보기제시 #부제 #인용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3%	83%	1%	1%	12%

◆정답 ②

<보기>: 기사 내용 중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과 이별하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기증을 통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나눔’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번 기증으로 시민들의 ‘쉽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직접 인용 된 학생회장의 말을 고려해 ‘쉽터’, ‘나눔’, ‘협력’ 등의 말이 있는 선지 ②가 가장 적절하다.

※인용에 대해 알아보자!

ㄱ. 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 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 라고 했어. (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 인용)

[2016 수능A 3번]의 지문으로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됨!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 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음.

10. <작문>

#점검 결과 #수정 방안 #주술 호응 #피동_사동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2%	2%	91%	3%	2%

◆정답 ③

이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학교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소 나무를 당장 베어 버리기보다는 몇 달만이라도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 서술어 <합의했다>의 행위 주체는 <학생회와 동문회>이므로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선지 ③은 점검 결 과는 물론 수정 방안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학생회와 동문회>에 주격 조사 <이/가>가 아닌 <에서>가 사 용되어 <학생회와 동문회>가 주체(주어)가 아닌 것으로 착각 할 수 있다는 출제제의 함정 의도가 반영된 설정이다. 여기에서는 <에서>가 ‘부사격’이 아닌 ‘주격’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사 <에서> 가 ‘주격이나 혹은 부사격이나’로 쓰임을 구분 판단하는 문제가 이미 출제 된 바 있다.

2014 수능

<에서>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집에서 놀자)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집에서 출발하자)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우리학교에서 우승했다) (☞①, ②: 부사격 / ③: 주격)
--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인 것 같지만 첫째가 서술어이고 그 다음이 주어이다. →(1순위-서술어, 2순위-주어) 그래서 이 둘의 관계의 호응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문장이 길고 복잡할수록 서술어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 어를 파악해두자!

◆오답 풀이

①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숲의 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토 요일 오전 10시부터 숲이 위치한 시민 공원에서 열린다.→(미 래 시제)~재학생과 동문 선배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 였다.

⇒행사가 열리는 시간은 미래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

②

지난해 3월,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축’에서 신(新)은 ‘새롭다’라는 뜻으로 ㉠새로와는 의미상 불필요한 중복 표현이기에 삭제해야 한다.

☞ ‘체육관을 신축’ = ‘체육관을 새로 건축’

▶국어는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중복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강조를 위한 중복과는 구별해야한다.

④

㉔비단 시민 공원에서 술숲을 조성할 1)소나무가 필요하다며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반겼고, 술숲의 터가 정리되는 대로 술숲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 ㉔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지만 지문에서는 긍정하는 말1) 앞이기 때문에 비단을 사용할 수 없고 ‘때마침’으로 수정해야한다.

⑤

이처럼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술숲의 조성은 교내의 소나무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㉔해결되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우리말에서 이중 피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피동의 요소 2개 중 하나는 삭제해야한다.

㉔<해결되어졌다는>=해결+되(피동)+어지(피동)+었+다+는

☞ ‘어지(피동)’를 삭제하여 ‘해결되었다는’으로 수정

※피동 vs 사동 그만 헷갈리고 이젠 외우자!

- ㄱ.피동: 주체가 일을 **당함** (문이 닫힌다)
- ㄴ.사동: 주체가 일을 **시킴** (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

▶ 이중피동은 무조건 불가하지만 이중사동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1) 그는 그녀를 울렸다.(○) →사동표현: [울+리(사동)+었+다]
- 2) 그는 그녀를 울게 하였다.(○)
→사동표현: [울+게 하(사동)+었+다]
- 3) 그는 그녀를 울리게 하였다.(X) →불필요한 이중사동
- 4) 그는 그녀를 재우다.(○)
→이중사동 허용: [자+이(사동)+우(사동)+다]
- 5)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다.
→이중사동 허용: [먹+이(사동)+게 하(사동)+다]

☞ 3)이 불필요한 이중사동인 이유는 1)과 2)와 같이 사동표현 하나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2, <용언 활용 탐구>

11. <고전 문법> ☆오답률 7위☆ (평가원 4개년 중 29위)

#탐구 활동 #자료 이해 #반모음 #음운 소실 #반모음 #규칙_불규칙 활용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9%	5%	59%	17%	11%	8%

◆정답 ②

<자료>: 그런데 ‘병’,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병’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박>도와’, ‘더벅>더워’에서와 같이 ‘ㅈ’ 또는 ‘ㅉ’ 앞에서는 반모음 ‘ㅈ/ㅉ[w]’로 바뀌었고~

(♠<도박>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병’의 소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문에서 ‘병’의 소실과 관련된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신속히 찾아야 한다)

⇒15세기 국어의 ‘도박’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병’이 어간 끝에서 ‘ㅈ’으로 바뀐 결과가 아니라 ‘병’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ㅈ’ 앞에서 반모음 ‘ㅈ/ㅉ[w]’로 바뀐 결과이다. 지문 어디를 보더라도 ‘무엇이 어간 끝에서 무엇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없고 음운이 바뀌는 환경이 모두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이다. ☞(뚱+아 > 도박 > 도와)

※<반모음>에 대해 알아보자!

- 1) ‘ㅣ’계열: ㅣ+ㅈ=ㅉ, ㅣ+ㅉ=ㅊ, ㅣ+ㅊ=ㅑ, ㅣ+ㅑ=ㅓ... 등 단모음을 만나 이중모음을 형성함.
- 2) ‘ㅈ/ㅉ’계열: ㅈ+ㅈ=ㅊ, ㅉ+ㅉ=ㅑ 등 단모음을 만나 이중모음을 형성함.

☞ ‘ㅈ/ㅉ’계열은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음의 개수는 2개이며 이중 모음은 단모음+단모음이 아니라 반모음+반모음이다.

★고전 문법 공부의 주안점은 현대 문법과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음운(병, ㅅ, ㅈ, ㅇ, .)의 소실과 변천 과정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다.

◆오답 풀이

①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병’, ‘ㅅ’이 사라지면서 ‘도박’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활용 과정에서 ‘어간’의 모습이 바뀜)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활용을 하게 된 거야.

⇒원래 용언의 활용에서 바뀌는 부분을 ‘어미’,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화 2>를 통해 활용 과정에서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불규칙 활용임을 알 수 있다.

(‘돕-’+아 > 도바 > 도와): 어간 ‘돕-’의 일부인 ‘ㅂ’이 사라짐.
(‘젓-’+어 > 저서 > 저어): 어간 ‘젓-’의 일부인 ‘ㅅ’이 사라짐.

☞어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규칙이 깨졌기에 불규칙 활용에 해당

※어간과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1) 어간: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 2) 어미: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 시 변하는 부분.

*먹고, 먹어서, 먹으니(‘먹-’: 어간 / -고, -어서, -으니: 어미)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 1) 규칙 활용: 변하지 않는 ‘어간’을 기본으로 활용함.
(일다→일고, 일어서, 일어라) (잡다→잡고, 잡아서, 잡아라)
- 2) 불규칙 활용: ‘어간’의 기본 형태가 달라짐.
(들다→들고, 도와서, 도와라) (듣다→듣고, 들어서, 들어라)

③

<대화 2>

A:자료를 보니 ‘빙’, ‘ㅅ’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대화 2>를 통해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젓-’+어 > 저서 > 저어) 이므로 어간의 끝은 ‘ㅅ’이고 어미는 ‘-어’이지 어미를 ‘ㅅ’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ㅅ’가 자음 ‘ㅇ’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초성의 ‘ㅇ’은 자음이 아니라 ‘ㄴ’의 비어있는 초성을 메워주는 무의미한 기호일 뿐이다.

※ ‘ㅇ’-초성: 음운이 아님. 음절을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기호.
-종성: 자음에 해당.

④

<자료>: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나타난다.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돕-’)이 달라지지 않는다.

⑤

<자료>: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나타난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젓-’)이 달라지지 않는다.

12. <고전문법> ☆오답률 2위☆ (평가원 4개년 중 7위)

#탐구 활동 #용언 #활용형 #음운 소실 #변화 양상 #모음조화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7%	37%	13%	29%	13%	8%

◆정답 ①

<자료>: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1)‘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버>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ㄴ’ 앞에서는 반모음 ‘ㅍ/ㅌ[w]’로 바뀌었고, 2)‘도북시니>도오시니’, ‘셔불>셔울’에서와 같이 ‘ㅅ’ 또는 ‘ㅈ’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ㅍ’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3)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5)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선지 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고바>고와)는 ‘빙’이 ‘ㅂ’ 앞에서 반모음 ‘ㅍ/ㅌ[w]’로 바뀐 결과1)이고 (고북>고온)은 ‘빙’이 ‘ㅅ’와 이어진 경우 모음과 결합하여 ‘ㅍ’ 또는 ‘ㅌ’로 바뀐 결과2)이며 (곱게>곱게)는 ‘빙’이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는 결과3)이다.

♣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르게 추정한 것’을 묻고 있다. 선지의 단어가 그대로 지문에는 없으니 유사하게 설명된 것을 신속하게 찾을 줄 알아야 한다.

▶‘빙’이 ‘아’ 앞에서는 ‘ㅍ/ㅌ[w]’중 ‘ㅍ’로 ‘어’ 앞에서는 ‘ㅍ/ㅌ[w]’ ‘우’로 발음되는 것은 모음조화에 의한 것이다.

※모음조화에 대해 알아보자!

:양성 모음(ㅏ, ㅑ계열)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ㅓ, ㅕ계열)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잡->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라와 만나고 <먹->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라와 만난다.

☞‘ㅏ, ㅑ’가 왜 양성인지 ‘ㅓ, ㅕ’가 왜 음성인지는 따지지 말자.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그서>그서(×) / 그슨>그슨(×)

<자료>: 다음으로 1)‘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2)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긋계>긋계)는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난 결과2)이며 (그서, 그슨)은 ‘ㅅ’이 사라져1) (그서>그어 / 그슨>그은)이 되어야 한다.

③

*누븐>누은(×)

<자료>: 먼저 ‘빙’은 ‘도바>도와’, ‘더벼>더워’에서와 같이 1)‘ㅌ’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ㄱ~/ㅌ~/[w]’로 바뀌었고, 도브시니>도오시니’, ‘셔블>셔울’에서와 같이 2)‘·’ 또는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3)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눅계>눅계)는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난 결과3)이며 (누벼>누워)는 ‘빙’이 ‘ㄱ’ 앞에서는 반모음 ‘ㄱ~/ㅌ~/[w]’로 바뀐 결과1)이고 ‘누븐’은 ‘빙’이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ㅌ’로 바뀌어2) ‘누운’이 되어야 한다.

④

*빗계>빗계(×)

<자료>: 1)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다음으로 2)‘ㅅ’은~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ㅅ’은 음절 끝에서는 15세기나 17세기나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나기2) 때문에 ‘빗계’가 있는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비서>비서, 비슨>비슨)으로 동일한 것은 빗다가 1)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어미 앞에서 ‘벗-’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빙’, ‘ㅅ’처럼 소실되는 음운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변해도 형태가 그대로이다.

⑤

*자바>자바(×) / 자븐>자븐(×)

<자료>: 먼저 1)‘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벼>더워’에서와 같이 ‘ㅌ’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ㄱ~/ㅌ~/[w]’로 바뀌었고, ‘도브시니>도오시니’, ‘셔블>셔울’에서와 같이 2)‘·’ 또는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3)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빙’은 ‘ㅌ’ 앞에서는 ‘ㄱ’로 바뀌어 ‘자와’가 되며1) ‘·’앞에서는 ‘ㄱ’로 바뀌어 ‘자븐’이 되고2) ‘잡계’는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난 결과3)이다.

13. <문법> ☆오답률 3위☆ (평가원 4개년 중 8위)

#음운 변동 #3점 #비음화 #동화_축약 #음절의 끝소리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유음화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41%	①	②	③	④	⑤
	6%	7%	38%	8%	41%

◆정답 ⑤

㉠ 맑+네→[망네]
:맑네→[막네](음절의 끝소리 규칙) →[망네](비음화)

㉡ 낮+일→[난닐]
:낮일→[난일](음절의 끝소리 규칙) →[난닐](음운첨가)
→[난닐] ⇨(비음화)

㉢ 꽃+말→[꼰말]
:꽃말→[꼰말](음절의 끝소리 규칙) →[꼰말] (비음화)

㉣ 굽+고→[글꼬]
:굽고→[글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글꼬](된소리되기)

*<읽지>에서 ㅎ+ㅅ의 축약은 ‘ㅈ’ →[일치]
⇒<보기>에는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은 없다.

⇨자음 축약의 핵심은 ‘ㅎ’이다. ‘ㅎ’은 거칠게 발음 되는 성질 때문에 만나는 다른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만든다. 그래서 낱말에 ‘ㅎ’이 없으면 신속하게 자음 축약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을 해야한다.

♣수능 문법 문제에서는 보통 <보기>나 선지에 제시된 낱말의 중간 발음 과정을 생략하고 ‘맑네→[망네]’ 처럼 바로 최종 발음만을 제시할 때가 많다. 하지만 중간 발음 과정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법 문제에서 음운 변동과 관련하여 어휘의 발음이 제시되어 있다면 중간 발음 단계와 그에 적용된 음운 변동 지식을 꼭 확인해야한다.**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보통 제시문으로 주어지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모두 기본적으로 외우고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별도의 지식 설명 없이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꼭 외워두자.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발음은 ㄱ, ㄷ, ㅂ, ㄴ, ㄹ, ㅁ, ㅇ 중 하나로 됨

- i. (ㄱ, ㅋ → ㄱ / ㄷ, ㅌ → ㄷ / ㅂ, ㅍ → ㅂ)
 - 특히 ㅅ, ㅆ, ㅈ, ㅊ, ㅊ, ㅎ → ㄷ
- ii. (겹자음의 탈락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됨. 값 → [갑])

2) <된소리되기>: 여러 환경에 의해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됨

특히 'ㄱ(ㄱ, ㅋ, ㆁ, ㄹ), ㄷ(ㄷ, ㅌ, ㅈ, ㅊ, ㅊ, ㅊ),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
-국밥[국뽕] 깎다[깎따]

3) <거센소리되기>: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국화 [구과], 말형[마형]

※비음화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비음 아닌 자음(ㄱ, ㄷ, ㅂ)이 비음(ㄴ, ㅁ)을 만나 비음(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국물→궁물, 꽃말→곶말→곶말, 밤물→방물)

※'ㄴ'음 첨가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한-여름[한녀름], 국민-윤리[국민닐리])

※동화와 축약을 구별해 보자!

- ㄱ. 동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덮는 것**.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ㅣ'모음역행동화...)
- ㄴ. 축약: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두 개의 성질을 공유한 **새 음운 탄생**.
☞자음 축약에는 반드시 'ㅎ'이 필요하다.
(일지→[일치], 말형→[마형])

◆오답 풀이

- ①
㉠ 맑+네→[망네] / '값+도→[갑또]'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음절 끝에는 자음 하나만 허용)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착각하기 쉬운 것!
☞겹받침 표기(맞춤법)는 허용, 겹받침 발음은 불가!
(*'맑네'→표기, [망네]→발음)

- ②
㉠ 맑+네→[망네], ㉡ 꽃+말→[곶말] / '입+니→[임니]'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비음화)이 있다.

※주의
☞비음화는 <비음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위치는 그대로 인체 조음 방법만 같아지는 현상이다. [2016 수능 정오 판단 지식]

- ③
㉡ 글+고→[글꼬] / '물+약→[물략]'
⇒ 각각 (ㄱ→ㄱ) / (ㄴ→ㄴ)로 교체 됨.

*<물약>: [물략]('ㄴ'음 첨가) →[물략](유음화)

※주의
☞'ㄴ'음 첨가 현상을 'ㅇ→ㄴ'의 교체로 착각하면 안 된다. 초성의 'ㅇ'은 자음이 아닌 빈 공간을 메워주는 기호 표시이기 때문에 없는 공간에 'ㄴ'음을 첨가하는 것이다.

※'ㅇ'에 대해 알아보자.

- 1) 초성에 사용: 음운이 아님!
- 2) 종성에 사용: 자음에 해당!

※<유음화>에 대해 알아보자.

☞'ㄴ'이 'ㄹ'을 만나 'ㄹ'로 바뀜. (칼날:[칼랄], 신라:[실라])

- ④
㉠~㉡ / '잃+지→[일치]'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매년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자음 체계>는 꼭 암기해야한다.

조음방법 \ 조음위치	입술	혀끝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울림소리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마찰음		ㅅ, ㅆ		ㅎ
	파찰음			ㅈ, ㅊ, ㅉ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14. <문법>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4위**

#관형절 #겹문장_출문장 #문장 성분 #절의 종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6%	7%	20%	56%	9%	8%

◆정답 ③

㉠ <목적어>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 ☞(부사어)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부모님이 어제 나에게 <일을> 시키셨다. ☞(목적어)

◆오답 풀이

①

㉡ <주어>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 <그들은> 어제 결혼했다. ☞(주어)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친구는> 누나를 많이 닮았다. ☞(주어)

②

㉢ <주어>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 <탁자가> 나무로 되어있다. ☞(주어)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주어)

④

㉣ <목적어>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친구가 나에게 <옷을> 주었다. ☞(목적어)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누나는 털실로 <장갑을> 줬다. ☞(목적어)

⑤

㉤ <부사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 ☞(부사어)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 관중이 쓰레기를 <경기장에> 남겼다. ☞(부사어)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자.

- ㉠. 주성분: 1) 주어-무엇이, 누가
2) 서술어-어찌하다, 어떠하다
3) 목적어- '을/를' 이 붙은 대상
4) 보어-되다/아니다 앞에서 '이/가' 가 붙는말

- ㉡. 부속성분: 1) 관형어-체언을 꾸밈
2) 부사어-용언을 꾸밈

㉢. 독립성분: 감탄사나 접속부사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 ㉠. 출문장: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 ㉡. 겹문장: 1) 안은 문장: 절이 들어간 문장
2) 이어진 문장: 연결어미로 이어진 2개 이상의 문장.

※<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 명사절: ~기/음 이 붙음
(*집에 가기 싫다. *그가 정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 ㉡. 부사절: ~게, 도록 등이 붙음
(*조용하게 말해. *죽도록 보고 싶다.)
- ㉢. 관형절: ~ㄴ, 은/는 이 붙음
(*예쁜 꽃을 받았다. *공부하는 철수를 보아라.)
- ㉣. 인용절: ~(라)고 가 붙음
(*철수는 "올해는 꼭 합격할거야"라고 말했다.)

15. <문법>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8위**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9%	59%	12%	15%	6%	8%

◆정답 ①

※<뛰노는>=뛰+놀+는 ⇒ '뛰어 노는'

⇒ 두 용언이 만나 합성어를 이룰 때는 연결 어미가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이다. <뛰노는>은 연결 어미가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 구성이 아닌 ㉠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시

- 1) 연결어미 생략: 여닫다(열고 닫다), 검붉다(검고 붉다)...
- 2) 부사+명사: 부슬비, 척척박사...
☞ 부사는 용언과 결합해야 한다는 일반적 구성을 벗어남.

3) 관형사형 어미 생략: 덮밥(덮은 밥), 먹거리(먹을 거리)...

▶ '조사'가 생략된 형태는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눈멀다' - 눈이 멀다)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낱말들(먹거리, 여담다 등)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옳거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주 사용하는 것과 문법적인 완전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답 풀이

②

*<몰라볼>

=모르+‘르’(관형사형 어미)+‘아’(연결어미)+보+‘르’(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적절히 쓰임 (통사적)

③

*<타고난>

=타+‘고’(연결어미)+나+‘ㄴ’(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적절히 쓰임 (통사적)

④

*<지난달>

=지나+‘ㄴ’(관형사형 어미)+달
⇒관형사형 어미가 적절히 쓰임 (통사적)

⑤

*<굳은살>

=굳+‘은’(관형사형 어미)+살
⇒관형사형 어미가 적절히 쓰임 (통사적)

※16~19,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주제: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의 과학적 원리

1)

- *인공 신경망 기술: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
- *뉴런: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
- *퍼셉트론: 인공 신경망에서 기본 단위로 사용

2)

- *퍼셉트론의 구성: 입력 단자, 입력 값 처리 부분, 출력 단자
- *퍼셉트론의 송출:
가중치+가중합 < 고정 임계치의 가중합 → 0
가중치+가중합 ≥ 고정 임계치의 가중합 → 1

3)

- ▶복잡한 판정이 가능한 인공 신경망: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됨.
(입력층+출력층)

4)

- 사과 학습 인공 신경망: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함.

5)

- *인공 신경망의 작동: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구분.
- *학습 단계: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
- *판정 단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16. <과학>

#단순 일치_불일치 #출제자의 심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3%	1%	83%	3%	10%

◆정답 ③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①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1)고정된 ②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3문단]

⇒②<임계치>는 ①<가중치>와는 상관없이 고정된 값1)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①가 변하면 ②도 따라서 변한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 A와 B는 상관없음 →(부적절 선지: A와 B는 상관있음)

♣출제자의 심리

☞지문에 <~보다 작으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과 같이 비교형 내용이 있기에 ①와 ②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출제자는 선지 ③을 적절한 것처럼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고정된’이란 수식어 하나만으로도 ③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②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1문단]

⇒①<퍼셉트론>은 ②<인공 신경망>의 기본 단위이다.

▶지문: A 그대로 → (적절 선지: A 그대로)

②

*①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구성되어 있다. [2문단]

⇒㉠<입력 단자>는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지문 : A 그대로 → (적절 선지 : A 그대로)

④

*퍼셉트론은~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2문단]

⇒㉢<임계치>를 기준으로 ㉣<출력값>를 0 혹은 1로 결정한다.

⑤

*<인공 신경망>의~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1)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끝문단]

⇒㉠<인공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출력값>은 정답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1)함으로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17. <과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4%	①	②	③	④	⑤
	5%	11%	6%	4%	74%

◆정답 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1)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5문단]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에서 출력층의 방향이 아닌, 반대로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1) 진행된다.

▶지문: A에서 B로 →(부적절 선지: B에서 A로)

◆오답 풀이

①

*<퍼셉트론>은~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2문단]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②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1)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5문단]

⇒[오차값=정답값-출력값]1)이므로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③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3문단]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④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1문단]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18. <과학> ☆오답률 4위☆ (평가원 4개년 중 10위)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42%	①	②	③	④	⑤
	6%	9%	42%	25%	18%

◆정답 ③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1)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4문단]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다.1)

♣추론 문제인데 단순한 내용 일치-불일치 수준의 문제로, 그냥 쉽게 출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1)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끝문단]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처럼 **변별적 특징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4문단]

⇒학습 데이터에 색깔과 형태라는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한다.**

☞지문에 <동일한 입력 단자>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한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동일한 범주에 동일한 입력 단자인 것이지만 색깔이나 형태와 같이 다른 범주면 다른 범주의 수만큼 X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④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끝문단]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1)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를 마친다.

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4문단]→(정답값과 출력값이 다르면 해당 학습 데이터인 '사과'가 아님)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되면 정답값과 출력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과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 신호가 출력되면 정답값과 출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 할 수 있다.

♣ 비문학 일치-불일치 유형 발문 별 난이도

(윗글을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19. <과학> ☆오답률 4위☆ (평가원 4개년 중 10위)

#보기 제시 #3점 #이해 #윗글을 바탕으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2%	6%	9%	42%	25%	18%

◆정답 ③

*퍼셉트론은 1)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2)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2문단]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3)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끝문단]

⇒1)에 의해 [<가중합>=가중치×입력값]이며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0.5×1+0.5×0+0.1×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2)

이때 <오차 값>은 <보기>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3) 그런데 이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오차값이 '0'이 아닌 이상, [B]로 한 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a, Wb, Wc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답 풀이

①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끝문단]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단계를 마친 이후에 판정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지문: A 다음 B →(부적절 선지: B 다음 A)

②

<보기>: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끝문단]

<보기>: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정답에 수렴하기** 때문에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퍼셉트론은 1)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2)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2문단]

⇒1)에 의해 [**가중합**]=**가중치×입력값**이며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0.5×1+0.5×0+0.1×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2)

“커뮤니티 질문”

Q. 비문학 인공지능경망 지문에서 18번 문제 선지 1번이 맞는 선지인데요, 이 선지에 대한 근거가 지문의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이 이해가 안가요...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지문의 중간 정도에 보면 각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어야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라는 건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 같고...

그리고 18번의 선지 1번도 또 다른 말인 것 같아요...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 사진을 선택한다는 뜻이 도대체 뭔지...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뭐랑 다른지 비교대상이 꼭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긴 또 여러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뜻 같아 보이진 않는데...너무 혼란스러워요ㅠㅠㅠ

/실수를반복하진않는다

⇒인공 신경망이 '사과'를 '사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과'에 관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사과도 그 종류가 많아 색깔이 빨갈거나 푸르스름 할 수 있고 그 크기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단 하나의 사과 사진으로만 인공 신경망에게 학습을 시키면 그 사진의 사과를 벗어난 사과에 대해서는 사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색깔이나 크기 등이 조금씩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기준이 사과에서도 크기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4,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주제: 동물 실험의 유효성 논란을 통한 유비 논증의 이해

(가)

유비 논증: 유사한 두 대상에서 한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한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줌.

(다)

유비 논증의 개연성: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일수록 개연성이 높음)

(라)

동물 실험을 반대 이유: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음.

(마)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됨.

20. <인문>

#이해 #비난_비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69%	①	②	③	④	⑤
	2%	3%	10%	16%	%69

◆정답 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1)'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결국 2)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1~2)에서 살펴보고 있다.

☞윤리적 문제를 다룬 부분은 유비 논증의 차원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거나 2)처럼 일관되지 않게 쓰였다는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

◆오답 풀이

①

[가]: 1)<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특히 2)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유비 논증>의 개념1)과 유효성2)을 소개하고 있다.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 (2016 수능에 '개념'과 관련된 정오 판정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됨)

▶지문: '유효하다' →(적절 선지: '유효성')

*유효하다: 보람이나 효과가 있다.

*유효성: 소용에 달고 이용할 만한 특성.

→보람이나 효과가 있으니 이용할 만하다.

②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지문: A를 활용한 B →(적절 선지: B에 A가 활용됨)

③

[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1)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1)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1)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2)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1~2)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대안 혹은 원인 제시함.

⇨(긍정적)

21. <인문>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9위**

#추론 #선지 오류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0%	4%	25%	8%	3%	60%

◆정답 ⑤

(마)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1)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1)이 전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1)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대상1)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②

(라)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1)<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직접 알 수 있고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만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1)

★유용한 팁★

♣선지 오류의 법칙!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인간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감각에 의해 아는 것이지 어떤 학문 이론에 의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문과 문제와는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으로 ②는 다음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절하지 않는 선지가 되며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이라면 100% 답이 된다.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되며 이런 선지가 수능에 자주 출제 되었다.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2015 수능의 정답 선지)

→UCC 제작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는 상식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어 선지 오류임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2013 수능 정답 선지)

→ ‘소리’와 ‘바람’의 속성은 장애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이 있다. 이를 자유의 의미와 대비된다고 표현한 선지 ③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2015 수능 정답 선지)

→ (독서 할 때뿐만 아니라 작문을 할 때에도 배경 지식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오히려 작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보고 배제하는 경우를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 매우 어려워 부정형 발문에서 거의 정답에 가깝다)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015 6월 평가원 정답 선지)

→ 말하기의 종류인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기의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선지 ⑤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③

(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

♣이전과는 반대 맥락의 내용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근거 지문으로 많이 활용되니 지문에서 ‘반면’, ‘그러나’, ‘하지만’ 등의 표지어 이후의 내용에 더욱 집중하자.

④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문: 원인 A+결과 B →(부적절 선지: A와 B 상관없음)

22. <인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0%	6%	4%	80%	7%	3%

◆정답 ③

(라)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1)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2)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①이 주목하지 않음)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만 주목 1)하고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는 주목하지 않는다2)고 비판한다.

※비난 v 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대안 혹은 원인 제시함

☺(긍정적)

◆오답 풀이

①

(라)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1)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1)고 생각한다.

②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1)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1)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④

(라)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1)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더라도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1)에 주목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⑤

(라)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1)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물도 똑같이 고통을 느낌)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1)하다고 생각한다.

23. <인문> ☆오답률 1위☆ (평가원 4개년 중 4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4%	4%	34%	3%	4%	55%

◆정답 ②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보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실험동물)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반응 결과)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유사성) ㉣다른 개(→적용 대상의 '인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개>와 ㉣<다른 개>는 유사성이 있기에 ㉠<어떤 개>의 추가적 특성(㉡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다른 대상(㉣다른 개)에게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

☞㉣<다른 개>가 <적용 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응되는 이유는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나)의 지문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생략

24. <어휘>

#바뀌 쓰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93%	2%	2%	2%	1%

◆정답 ①

㉠<끼치다>: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
 <맡기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담당하게 하다.

◆오답 풀이

- ② <가하다>: 어떤 행위를 하거나 영향을 끼치다.
- ③ <주다>: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 ④ <안기다>: 당하게 하거나 들췌우다.
- ⑤ <겪게 하다>: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게 하다.

♣어휘 문제는 언어 감각이 많이 좌우되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커뮤니티 질문”

Q.유비논증 문제 말인데요. 23번 문제 에서 보기에 ㉠'비슷하게' 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지문에서 말한 유사성과 대응되어서 정답 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3문단에 보시면 유사성은 단순하게 비 비슷하다는 것의 유사성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게 어떻게 답인거죠? /빠른거북이

☞ <유사성이 단순하게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은 아니>라고 한 것은 (비슷함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슷함을 넘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개연성이 높아 짐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Q. 유비논증지문 21번에 2번 선지에서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 안다. 이 선지 맞는 말 아닌가요? (라)를 보면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쪽 두 번째 논거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유비논증에 의해 알 수 있는데도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에는 왜 주목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결 통해서 보면 21번 2번 지문 저렇게 추론 가능한 거 아닌가요..하 5번이 너무 확실해서 5번했는데 분석하다보니: /연대고대22

↳인간이 고통느끼는 걸 유비논증으로 아나요? 자기가 직접 겪 는 거지 /정뚜우

☞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문장에는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동물만이 유비논증에 의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23번이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 알았음. 막판 4문단에 인간에 서 동물로 유비논증하는게 있어서 헷갈린거 같아요 다들 쉽다 생각하고 다시 사고를 안해서 그런듯 /갓철회갓상모갓홍철사대

↳저도그거틀려버렸네요 π/남규만띠
↳저도 다시 사고안해서 틀렸어요 ㅋㅋㅋ/고려대정외가자
↳자신있게 ㅈ밥이군 하고 풀고 자신있게 채점하고 자신있게 틀 림/스나장인
↳전 맞았는데 우리반애들이 다 당연히 5번이지 외쳐대서 틀린 줄./문과라서 초아
↳순간의 판단미스ππ/수고하세요

*1번이 켈 오래걸림...으응?하고 4분은 보고 푼듯...6평과 비슷하 게 내려고한 흔적이 보이지만 퍼셉트론지문과 유비 논증 지문과 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할정도로 지문이 쉬웠음 그나마 음악 문 제는 주제도 비슷하게 냄...문학은 강뽕강 /17설의

*저는 23번 유비논증 틀리고 집 와서 다시 보니까 한대 맞은 기 분이던데ㅋㅋ 제가 얼마나 대충대충 생각하는지 알게 된 계기였 네여 /야바위

↳솔직히 이번국어는 시간싸움 ㅇㅈㅇ/미대생
↳지문은 길어도 단락별로 문제화 되어 있는게 많아서 풀기엔 괜찮았던 것같아요 /castanets
↳음악은 쉬웠어요 ㅇㅇ/ButterFly
↳오히려 뉴런이 더 어려웠음 난 /바르다참선생
↳기술지문보고 안읽혀서 뒤로 갔더니 1페이지가 비문학지문이 라서 놀랐네요../공익수능준비중

*국어 기술 다 맞추고 남들 안 틀렸던 유비논증에서 2개나감 ㅈ ㅈ /갓철회갓상모갓홍철사대

↳그거 강아지 적용 문제가 오답률 1위...π/신성한지구과학

*하... 리트로 평소에 연습해서 긴지문 이런건 별지장 없었는데 유비논증 남들 다 맞는 말장난(?) 2점문제...눈달렸니..? 물어보는 문제... 틀렸어요 행 /공승연.

※25~27,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나) 작자 미상, <동동>

*갈래: 고려가요
*성격: 민요풍, 송도가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고독의 비애

*구성
정월령: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
이월령: 임의 인품에 대한 찬양
삼월령: 임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
사월령: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오월령: 임의 장수에 대한 기원
유월령: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비관
칠월령: 임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염원
팔월령: 임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

*감상의 길잡이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달거리 노래로,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 고려가요이다. 분장체 형식과 후렴 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 주며 임에 대한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한스러움, 그리움 등이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 작지 미상, <가시리>

*갈래: 고려가요
 *성격: 자기 희생적, 미래지향적
 *주제: 이별의 정한

*구성
 기: 이별에 대한 원망
 승: 원망의 고조
 전: 감정의 절제와 체념
 결: 소망, 기원

*감상의 길잡이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의 정한을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어조로 애절하게 담아낸 고려 가요이다. 모두 4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시의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고려속요 가운데서 민요적 특질을 비교적 충실하게 간직한 노래 중의 하나로 꼽힌다. <서경별곡>과 쌍벽을 이루는 이 노래는, 이별의 아쉬움과 정한, 기나긴 기다림 속에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이 간결하면서도 애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가 능동적, 적극적이라면, <가시리>의 화자는 소극적,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별의 정한 계승:
 '황조가'→'가시리, 서경별곡'→'송인'→'황진이, 흥랑의 시조'→'아리랑'→'진달래꽃'

<현대어 풀이>

(나)
 덕은 뒤에 바치고 복은 앞에 바치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서사>
 정월의 시냇물은 아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정월령>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이월령>
 3월 지나며 피어난 아아, 늦봄의 잔달래꽃 같은 임이여
 남이 부러워 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도다. <삼월령>

(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저는 어찌 살아가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까 두려워
 서러운 임 보내 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25. <고전시가>

#대립 선지의 법칙 #상층_하층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0%	①	②	③	④	⑤
	2%	2%	4%	90%	2%

◆정답 ④

*민간(→하층)의 노래가 궁중(→상층)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2문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3문단]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지문: A에서 B로 →(부적절 선지: B에서 A로)

◆오답 풀이

①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1)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1문단]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1)되었다.

②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2문단]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③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2문단]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사랑과 같은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⑤

*특히 1)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3문단]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1)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대단히 유용한 팁★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는 상충이 영향을 주느냐 혹은 받느냐에 관해 ②, ④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 ②~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영향을 받음)
- ④~상충 노래가~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영향을 줌)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②,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이상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심리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 쌍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6. <고전시가>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37위**

#고려가요 #후렴구 #통일성 #공통 선지 #송축 #이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3%	9%	6%	63%	7%	15%

◆정답 ③

*덕(德)이란 곱됨에 받좁고 복(福)이란 림됨에 받좁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늘 나스라 오소이다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덕’, ‘복’이란 말과 <송축: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과 충분히 대응시켜 볼 수 있기에 ㉠<송축의 내용>의 예로 볼 수 있다.

♣고전 문학 작품에 어려운 말이 나온다고 해서 먼저 검역을 필요는 없다. 문제의 정답을 찾는 단서가 1~2개의 어휘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위 문제의 경우에도 ‘덕’, ‘복’ 등의 어휘가 다른 것보다 <송축>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만 하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즉 1)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각 연의 마지막에 붙어 있어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게1) 하는, 즉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의 예로 볼 수 있다.

※<시의 통일성 확보> 관련 내용 기출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2016 수능)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형태적 통일성 구성 (2015 수능)

▶ 형식적인 통일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통일성도 국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송축의 내용>의 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로 볼 수 있으나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각 연마다 반복되는 ‘아으 동동다리’가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덕’는 각 연의 끝 부분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의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평성덕’가 ‘태평성대’와 유사한 것으로 추측한다면 ㉠<송축의 내용>의 예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의 예로도 볼 수 있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덕’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송축의 내용>의 예로 볼 수 없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닮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②, ③의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가 공통된다.

- ② (나)의 <서사>에서~
- ③ (나)의 <서사>에서~(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③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7. <고전시가>

#감상 #3점 #대칭구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5%	①	②	③	④	⑤
	7%	8%	3%	75%	7%

◆정답 ④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1)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편 첫째 작품으로 2)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3)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하소연)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일단 둘 다 대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이 전제되어야 함)

*올거나1) 하소연3) 하는 행위→ 시간의 흐름 (×)

'대립 구조'와는 반대인 <대칭 구조>는 어느 한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A]는 대칭 구조를 이루지만2) (다)는 대칭 구조로 보기 어렵다.

☞[A]가 대칭 구조인 것은 작품 해설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지 않고 직접 [A]의 대칭 구조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오답 풀이

①

(가)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1)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 정월(正月)스 2)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덕
 누릿 가온덕 나곤 몸하 호올로 널셔

⇒[A]에서는 작품 해설을 통해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1)이 드러나 있음을 직접 알 수 있고 (나)의 <정월령>에서는 자연의 순리적인 현상과 대비2)되는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호올로'→님의 부재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연의 긍정적 현상>과 <인간의 부정적 모습>의 대비 테마는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제시된 <동동>에서는 <님>이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고전 시가에서 <님>이 등장하면 대부분이 시적화자는 <님>을 사랑해서 <님>이 현재는 곁에 없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심리 상태를 갖는다.

※시적화자는 다정한 한 쌍의 동물을 보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넋물이 얼고 녹는> 자연의 평범한 순리를 마주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조금은 억지스러운 듯한 이 부분을 어찌 해석해야할까?

☞사람은 아픔, 외로움, 괴로움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갖게 되면 평소에 의식하지 못한 현상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자연의 평범한 순리처럼 시적 화자도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살고 싶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넋물이 얼고 녹는> 현상에서도 자신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②

(가)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1)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 삼월(三月) 나며 개(開)호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2)누덕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A]에서는 작품 해설을 통해 <물수리 한 쌍>의 조화로움1)을 직접 알 수 있고 (나)의 <만춘 들윗고>은 남이 부러워할 모습2)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둘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1)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2)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작품 해설을 통해 [A]에서는 화락1)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2)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의 근거를 직접 판단 할 수 있는 지문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가시리」에 대한 해설이 지문 (가)에 있어 이를 보지 못하고 직접 (다)를 통해 <이별의 상황>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면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금물이다. 1초라도 시험 시간을 아껴야 하는 수능 국어! 잊지 말자, 시간 절약이 곧 점수차이고 실력이라는 것을!

⑤

(가)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1)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나)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샤다
→(그만한 ‘덕’이 있기에 만인을 비춤)

(다)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사랑하기에 다시 돌아 오라고 함)

⇒[A]에서는 해설을 통해 풍속을 교화1)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직접 알 수 있고,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 작품은 일단 현대어가 아니어서 해석이 쉽지 않지만 <동동>은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작품이다. 이런 **빈출 작품은 작품 해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는 해석이 없는 원문만 제시되니 쉬운 뜻 풀이를 자주 봐서 실제 시험 때는 최소한 원문의 70%이상은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다.**

“커뮤니티 질문 & 후기”

Q. '송축' 뜻 모르면 틀리는 건가요? /왜다존대한다

↳당근! 아니면 나머지 네 개를 확실히 알면 됨ㅎ /gustkd1120

Q.동동은 연계교재에 나와 있어서 그러려니 하지만..가시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고전시가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함..

/ZMITX01VAWkKDi

↳가시리같은 유명한 거는 내신에서도 다루지 않나요? 저는 외워버릴 정도로 공부 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베베뽀

Q. 고려가요 다들 정리하시나요?

동동 가시리 이런 거 나옴 초토화될 거 같은데 공부 안해 놓으면 해석자체가 불가능해서 어차피 다 어려워 할테니 지금 이시점에 가사 보는 게 낫겠조?

↳한번쯤 봐주세요ㅇㅇ /하나카나

↳해석은 외운다기보다는 원문 보고도 대충 이런 뜻이었지 알아듣는 수준이면 충분 하지않나요 /Freischutz

Q. 고전시가 기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국어가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고전시가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N수생이라 어제 집에서 6모 풀어봤는데..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동같은 거 나오니까 완전 멘붕 오더라구요..관련 문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해서 짝공ㅋㅋㅋ/SAPI

↳고전 쪽은 모르는 단어는 그래도 외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도루도루쿠

↳고전시가는 나오는 지문들은 정해져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작품들 정리해 놓는 게 좋죠. 고전 어휘도 같이 보고요.

/bababab0611

☞고전 시가는 원문과 해석을 번갈아 가면 자주 익혀 두어야 눈에 익는다. 원문의 약 70%만 해석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기 때문에 작품 공부 시 해당 <작품명+해석> 인터넷 검색을 통해 틈틈이 현대어 풀이를 익혀두자.

*와 국어 왜 이럼.

고전 시가 보고 오 동동하고 가시리 아는거다! 강 풀겠네 했는데 비문학이고 ㅋㅋㅋ /샤ㅋ

↳ㅋㅋ나도 문학인줄 알았는데 문제 보니까 비문학이야 /곱창쥐

Q.고전시가 읽을 때

발음 나는 대로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뜻이 안 떠오르는데??하는 어휘들은 따로 외우는 게 맞죠??예를 들어서 6모에 나온 곰 비예(앞잔에) 림비예(뒷잔에) 나스리 오소이다(바치러 온다) 만인 비취실 즈지샷다(만인 비추실 모습이다) 즈즐(모습) 같은 건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건가요?? /마나아라바자

↳외우면 편한게 확실히 있죠 헤다가 생각하다라던가 하다가 많 다라던가 네이버에 고전 필수 어휘치면 나올걸요 /오우인직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히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고어와 현대어 풀이를 반복적으로 보아 문맥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보기 바랍니다. 고전 시가의 작품을 100%로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70% 정도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Q. 동동 만나오나요? 6월에 나왔으니까 만나오나요?/연세대수학

↳수능에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은 안 나온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니, 출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특히, 동동과 같이 문제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작품은 꼼꼼히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Q. 동동 해석점.

'삼월 지나며 핀 아으 만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도다 아으 동동다리' (삼월령)

이거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데 시에 직접 임같은 소리는 안 나오는거 보면 내용 자체는 진달래꽃은 아름답다 라는 거고 속뜻으로 임도 역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노베5월8일공부시작

↳작품의 해석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한 해설의 제시문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합니다.

*나 국어 문학부터 풀고 비문학 푸는데 거기 동동 가시리에서 멈칫함 ㅋㅋㅋㅋ그래서 에 비문학 한문제인가??하고 그것부터 풀음 ㅋㅋㅋㅋ뒤에 보니까 또 비문학 ㅋㅋㅋ /논술준비어떡하지

↳ㅇㅋㅋㅋㅋ갑자기 문학 나와서???이랬는데 비문학이고..ㅋㅋ /경희화공17공대여신

↳ㅋㅋ진심 오늘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산 말이 이거슨 문학도 비문학도 아니여 ㅋㅋㅋㅋ /광보과

↳난 문법 풀다가 비문학인줄 알고 놀람.. /Kelly9834

↳다하고 휴 이제 문학인가 했더니???뭔지 했어 이시발 비문학 마지막 지문 당황해서 넘김ㅋㅋ/Winnera

*동동. 고어로 나오니까 진짜 잘 모르겠다..

이거 그나마 연계교재에 수록된 부분이여서 다행이었음ㅠ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ㅁㅈㅎ내자신

※28~33, <음악의 아름다움>

1)음악: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

▶음악적 아름다움의 구현 방법 제기

2)

*음악의 소리: 고른음과 시끄러운 음으로 구분

*고른음: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

*진동수: 파형이 1초당 반복 횟수.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짐.

*단순음: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짐.

*복합음: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

*부분음: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기본음: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

3)

*음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

*현악기나 관악기의 고른음: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짐.

*타악기 소리: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음.

*소리 스펙트럼: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남.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음.

4)

*협화도: 음의 어울림은 음정에 따라 달라짐.

*음정: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나타냄.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됨.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짐.

*협화 음정: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봄.

5)
 *음악: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

*한슬리크: 음악이 환기하는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음악의 가치를 찾으면 안 됨.

6)
 *리듬: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
 *가락: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
 *화성: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셈여림: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
 *음색: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

7)
 *주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가락.
 *작곡가: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
 *음악의 예술성: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28. <예술>

#공통 선지의 법칙 #분석_구분 #과학적 #분석_구분_분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5%	①	②	③	④	⑤
	7%	8%	3%	75%	7%

◆정답 ④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1문단]
 →(글의 주제가 '음악의 아름다움'과 관련됨)

⇒1문단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화제로 제시했으며 <소리>에 관하여 (주기성, 파형, 진동수, 진폭, 사인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에 ④가 가장 적절하다.

▶(과학적, 체계적, 객관적) VS (주관적, 개성적, 의식의 흐름)
 :[☆국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구별 요소]

▶ (주기성, 파형, 진동수, 진폭, 사인파)와 같이 한자로 된 전문 용어가 나오면 <과학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오답 풀이

①
 ⇒소리에 대한 인간의 감각과 그것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이 아닌 <음악의 소리>에 관한 과학적 탐색이다.

☞그냥 <미적 본성>이라고 하면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해 음악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지문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소리를 구분(고른음, 시끄러운음)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아름다움의 <예술성 구현 양상>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 vs 구분 vs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ㄱ.분석: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곤충을 머리,가슴,배로 쪼갬)

ㄴ.구분: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과일을 사과,배,감 등으로 나눔)

ㄷ.분류: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사과,배,감 등은 과일로 묶음)

☞비슷해 보이는 분석과 구분의 차이점은 분석된 개체(머리, 가슴, 배) 자체를 곤충이라 할 수 없으나 구분된 대상들(사과, 배, 감)은 자체를 과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하고 헛갈리는 어휘는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충 대충의 습관은 결국 점수도 대충 받게 된다.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나누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의 특성을 설명한 후에 음정과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뺀 끈)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②, ④는 [음악, 아름다움, 과학적, 탐(探)]이 공통된다.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 없이 ②, ④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9. <예술>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31위**

#이해 #한자_한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61%	①	②	③	④	⑤
	61%	14%	11%	5%	9%

◆정답 ①

*<리듬>은 음고(음의 높이)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1)<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6문단]

⇒‘음의 높낮이’를 갖는 것은 <리듬>이 아니라 <가락>이다.1)

♣정답 판단의 관건!

▶(지문: 한자) → (선지: 한글)

: 지문의 ‘리듬은 음고 없이’에서 <음고>의 한글 풀이(음의 높이)만 알아도 아주 쉽게 ①이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1)<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6문단]

*어떤 2)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끝문단]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1)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2)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지문: 2개의 문단의 2문장 A, B →(적절 선지: 1문장 A+B)

③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1)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6문단]

*주제는 2)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끝문단]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1)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2)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지문: 2개의 문단의 2문장 A, B →(적절 선지: 1문장 A+B)

④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6문단]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⑤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1)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6문단]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1)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30. <예술>

#일탈 선지의 법칙 #입장 #정서 #정답의 근거 위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9%	①	②	③	④	⑤
	3%	8%	6%	79%	4%

◆정답 ④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1)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2)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지문-선지>간 대응 핵심어: ‘움직임-연결’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 5도가 되는 음들1)을 조직적으로 연결2)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재료들의 움직임이 반영됨)

♣<㉠의 입장>과 관련된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 입장>부분 주변에 정답의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지문에서는 ㉠<한슬리크>에 따르면,~의 형태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인물의 핵심 입장이 드러나 있다.

★유용한 팁★

♣끝문단이 중요하다!

☞ 끝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정답의 근거 지문이 끝문단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문단에 있다!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24번)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16번)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22번)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20번)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44번)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45번)
- *글쓴이가 다른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24번)
-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45번)

◆오답 풀이

①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1)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 입장>에 따르면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들면 안 된다.1)

②

⇒<상쾌함>을 느끼는 것도 정서적인 것과 관련 있기에 <㉠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음.

③

⇒<내면의 불안감>은 정서적인 것과 관련 있기에 이를 조성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음.

⑤

⇒<화들짝 놀라는 것>도 정서적인 것과 관련 있기에 <㉠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음.

★대단히 유용한 팁★

♣일탈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④번 선지가 좀 튀는 이유, 그리고 높은 정답의 가능성! 선지 ④에만 <정서>와 관련된 말이 없다.

- ①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정답)
- ⑤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 그래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이다.

▶ 객관식 국어 시험에서 애매함과 논란을 막기 위해 뚜렷한 정답을 설정하려다 보니 위와 같은 일탈 선지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1. <예술>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33위**

#그림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2%	5%	15%	62%	10%	8%

◆정답 ③

*1)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문단]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진동수(가로축)가 110Hz인 것이 가장 작기 때문에 <기본음>에 해당1)하고 그 세기(세로축)는 가장 크다.

▶ 비문학 도표 관련 문제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 비문학에서 <그림>, <도표> 등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 근거는 보통 해당 <그림>, <도표>가 포함된 문단에 있는데 이번 문제는 해당 문단 이전인 2문단에 정답의 근거가 있다. 해당 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전 이후의 맥락을 천천히 살펴보자.

◆오답 풀이

①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심벌즈)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1)시끄러운음(심벌즈)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2문단]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2)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그림처럼)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3문단]

⇒<심벌즈>는 주기성을 갖지 못하는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이기1) 때문에 <그림>처럼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2)

※또 다른 풀이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3문단]

⇒<심벌즈>는 <타악기>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는 <정수배>를 이루고 있는 <그림>과는 달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풀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 i. <심벌즈>는 <타악기>이다.
- ii. <정수배>는 기본음에 각각 정수를 곱한 것이다.
 ⇒기본음(110) ×2, ×3, ×4...(220, 330, 440...)

②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1)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문단]

⇒기본음의 진동수가 100Hz이며(정답 해설 참조),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1)하기 때문에 복합음의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100Hz로 인식된다.

④

*이때 같은 1)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2문단]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2)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문단]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1초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파형의 반복 횟수'1)를 나타낸 <진동수>에 따라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2)이다.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각각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음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선지에 대한 정오 판단은 항상 최소한의 근거 지문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는 똑같이 정답과 오답을 찾아낸다면 누가 더 신속하게 접근했느냐가 남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1초의 시간이라도 아껴라! 1초라도 모으고 모으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그냥 찍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

⑤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1)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2문단]

⇒<음색>은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1)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220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지면 음색은 변하게 된다.

32. <예술>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7위**

#비교형 선지 정답 #계산 #보기 제시 #3점 #~을 바탕으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8%	5%	58%	8%	16%	13%

◆정답 ②

[A]: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P와 Q 사이의 음정: $550/440=1.25$) >
 (Q와 R 사이의 음정: $660/550=1.20$)
 ⇒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넓다.

◆오답 풀이

①

[A]: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P와 Q 사이의 음정>은 550/440 즉, 5/4이기 때문에 <장3도>에 해당한다.

▶ 지문: A는 B이다 →(적절 선지: B는 A이다)

③

[A]: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P와 R 사이의 음정($660/440=3/2$)은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 중 2,3으로만 표현되기에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3문단]

<P의 기본음>은 440이고 그 정수배는 880, 1320, 1760~이며 <S의 기본음>은 880이고 그 정수배는 1760, 2640, 3520~이다. 그래서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 (1760)이 있다.

♣ 위 선지의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 i.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다.
- ii. <정수배>는 기본음에 각각 정수를 곱한 것이다.
 기본음(110) × 2, × 3, × 4...=(220, 330, 440...)

★실제 수능에서는 배경이 없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배경 지식 덕분에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경우는 종종 있다.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도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꼭 필요했던 배경 지식들>

- *'토끼전의 주요 줄거리' -[2016 수능 문학]
- *'낮보단 밤에 소리가 더 잘 들림' -[2016 수능 문학]
- *'(밀도)=질량/부피, (무게)=질량×중력 가속도' -[2016 수능 비문학]
-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 -[2015 수능 문법]
- *'상춘곡에 대한 기본 해석' -[2015 수능 문학]
- *'관동별곡에 대한 기본 해석' -[2015 수능 문학]
- *'홍길동전 전체 기본 줄거리' -[2014 수능 문학]

⑤

[A]: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분자와 분모의 수치와 협화도는 반비례)

*P와 S 사이의 음정: $880/440=2/1$
 *Q와 R 사이의 음정: $660/550=6/5$

⇒<Q와 R 사이의 음정>의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P와 S 사이의 음정>의 협화도가 더 크다.

★굉장히 유용한 팁★

♣ 출제자의 심리: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 등 수치까지 나오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수치가 들어간 선지를 정답으로 자주 설정한다.

* 위 문제의 경우, 부정형 발문이며 선지 ②, ⑤에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정답)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정답 선지만이 유일하게 수치 비교가 있음!

* (2016 수능 A 16번) 정답 선지
 ⑥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에너지는 2배가 된다.

* (2016 수능 A 18번) 정답 선지
 ④ A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 (2016 수능 B 22번) 정답 선지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한 시험에서 3 문제나! 이것은 우연이라기 보단 출제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5개의 선지 중에서 비교 형태의 선지가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봐야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33. <어휘>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9위**

#보기 제시 #본_보조 용언 #유사한 것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0%	9%	8%	8%	60%	15%

◆정답 ④

- ㉠: 본용언 →자립성 있음, 서술어 기능
- ㉡: 보조용언 →자립성 없음, 본용언의 의미 더해 줌.

※④의 겹문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2개의 홑문장으로 분리 가능하다.

-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i. 그는 돈을 구할 것이다.
 - ii. 내일까지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오겠다고>가 자립성이 있고 서술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과 쓰임이 유사하다.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의 판단은 해당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면 본용언이고 성립 되지 않으면 보조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그 일을 다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버리니>는 ㉡<보조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본용언(혜)의 의미를 더해 줄뿐이다.

*[버리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본용언)- '휴지를 버리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주었다.(?)

⇒<주었다>는 ㉡<보조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본용언(들어)의 의미를 더해 줄뿐이다.

*[주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본용언)-'용돈을 주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뒤라.(?)

⇒<뒤라>는 ㉡<보조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본용언(쉬어)의 의미를 더해 줄뿐이다.

*[두다]: 일정한 곳에 놓다. ☞(본용언)-'연필을 책상위에 두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보고(?) 시작하자.

⇒<보고>는 ㉡<보조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본용언(계산해)의 의미를 더해 줄뿐이다.

*[보다]: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본용언)-'영화를 보다'

“커뮤니티 질문 & 후기”

*음악지문 정보량 미쳤네요.
진짜 읽으면서 욕함 와...
근데 문데는. 쉬워서 다행 음악문제만 /솔로

Q. 6평 음악지문 통달 하신 분? 독해 고수 분 질문 좀..

각각 문단은 잘 정리가 되는데 문단 간 연결성이 안 느껴지네요
여태 평가원 수능지문 보면서 이 말을 굳이 왜하지...란 의문이 드는 글이 없었는데 음악지문은 좀 그렇네요...내용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큰데../kWtaBA7I2v196q

↳맞아요 이번 6평만 유기성 떨어진다고 함 강 명시적 근거로 풀어도 다 맞음 π/디올
↳과학 지문지문으로 가다 예술로 바뀔 때 문맥 흐름이 끊겨서 그냥 비문학 2지문 푼다 생각하구 풀어야지 하고 했음 전 /이지홍
↳딱 봐도 정보만 오지게 나오고 연결 안되는 것 같길래 문단별로 샤프로 그어놓고 문맥적인 것들만 대충 이해하면서 빨리빨리 풀어어용ㅋㅋ /설대카이스트생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대충 눈알 굴리며 풀어서 다 맞음 /서울대총장박살내기

Q.'음악 지문 문제 풀 때 현악기는 기본음의 정수배이다' 이거 생각하셨나요? '현악이이면 기본음의 정수배이고 타악기면 기본음의 정수배가 아니다' 이거 문제 풀때 기억 하셨나요? 막상 보기 문제 풀 때는 분수 관련된 부분만 보느라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ㅋㅋ /합격하고파

↳물1러는 가볍게 넘겨도 이미체화 /RevengE
↳그래프 까지 덧붙여서 상세히 설명해가지고 문제에 나올 거 예상했어요 /26오글로디

*6평 음악지문이 복합지문인가여?!?

친구 말이 음악지문이 기술이랑 예술 복합 지문이라고 했다네요.. 뭐.. 파동인가 진동인가 나왔으니 기술 관련이라고... 근데 전 전혀 기술로 안 느껴지기도 하고 기술 지문 앞에 내놓고서 또 기술 복합을 냈을 거 같지도 않고 애당초 음악에서 음을 설명하려면 그 정도의 진동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소리에 대한 과학 지문이라고 하면 음음.. 나름 이해하려 하겠는데 여튼 이런 걸 장르복합 지문이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어피치

-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Planet Pluto
- ↳그냥 지문길이가 좀 길었던 지문 /펜텔수정펜
- ↳예술이던 기술이던 강 풀면되는데 /슈랍튬펜
- ↳정보량 x 많은글 아닌가요? /인생은 직진
- ↳예술 과학 복합지문이지 /츄릅츄릅

Q.이번 6평 국어 음악지문

이 지문 같은 건 어떻게 읽으시나요?? 보면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될까?'라고 써놓고 각 문단은 다 따로 노는 거 같아서... /아나아나키

- ↳유기성 떨어지는 글인 건 사실이고 그냥 단락별로 문제랑 대응시키면 됩니다 /요우코사마
- ↳그 지문은 단락별 중심내용이 명확하길래 주제랑 흐름만 잡아 놓고 문제로 갔어요 /리얼공감영어이명학
- ↳거시적은 흐름만 봤을때는 맞아떨어지는데 단락 간에 연결이 너무 부자연스러움. 전 12문단 읽다가 과학으로 글 전환되길래 그 부분부터 단락 요약하면서 풀었어요 /아카라카초
- ↳딴소리긴 한데 음악지문보다 다른 지문이 더 어렵지 않았나요? 기출에 비슷한 지문 있지 않았나.../벌써일년
- ↳6평은 그워지 기술지문 빼곤 길이만 길지 괜찮았음.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운 기억 있어서 씬여림 리듬 뭐할 때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서성한미만잠
- ↳키워드 챙기면서 읽고 대응하면서 풀어서 한 8분쯤 걸렸던 거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깊게 고민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는게 중요한 듯 /동글대의대수석
- ↳내용에서 분야가 한 개가 아닌 거 같아서 따로 생각하고 풀었어요 /연통17(재)
- ↳그냥 읽고 왔다갔다 풀었어요 할라했는데 워트 댓글들이 구체적이다 x 결론은 그냥 읽고 왔다갔다 풀었어요! /ButterFly
- ↳한번 주욱 읽고 체크 /스이긴토

☞ 지문이 각 문단 별로 길다 보니 자체의 내용이 부각에 유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문단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의 구현 방법'에 대해 화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문단들이 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4~38,

(가) 박두진, <향현>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 *성격: 상징적, 자연 친화적, 평화 지향적
- *주제: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갈망

- *구성
- 1연 암담한 현실과 산을 보고 싶은 염원
- 2연 모든 것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산
- 3연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산
- 4연 화염의 갈망
- 5연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의 기원

*감상의 길잡이
☞ 이상향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강한 열망을 반복과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향현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으로 화자가 꿈꾸는 세계이며 자연을 매개로 하지만 실은 인간세계를 보여주며 생동력이 넘친다.

(나)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의지적
- *주제: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

- *구성
- 1~2연 물로 만남을 가정함
- 3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상황
- 4연 물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

*감상의 길잡이
☞ 이별의 슬픔이나 고통, 한스러움의 부정적인 상황을 탈피하여 새롭고 순수한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 박이문의 <눈>

- *갈래: 수필
- *성격: 사색적
- *주제: 눈의 속성과 그에 대한 사색

*감상의 길잡이
☞ 눈과 눈 덮인 세계에 대한 사색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여 고독에 빠지지만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34. <시+수필>

#1항목 후순위의 법칙 #공통선지의 법칙 #대화체 #시적 청자 #대구법 #대립 #비유법 #계절적 배경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3%	12%	2%	73%	8%	5%

◆정답 ③

(가)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산(山)이여!~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기다려도 좋으랴?
→(설의법: 기다리겠다!)

(나)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가)와 (나)는 청자(너희들, 산이여 / 그대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화합, 평화 / 완전합일, 생명력 충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정한 시적 청자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자를 부르는 말(~이여, ~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대화>에 관한 문학의 특이점

[화법의 대화: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

☞시에서는 직접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의식하고 부르거나 건네는 말만 있어도 독백체가 아닌 <대화체>로 본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뚜렷한 <대구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기다려도 좋으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 5연이 각 문장에서 각각 <~기다려도 좋으랴?>로 동일하게 끝나지만 서술어 하나의 동일성만으로 대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 <대구적 표현>: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운율 형성!**

▶시에서 <회고>, <회상>의 장면이 나오면 대부분 과거의 긍정적인(평화, 아름다움, 추억) 분위기와 현재의 그럴지 못한 모습이 대조되기 마련이다.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물↔불)가 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계절적 배경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물>의 이중성

- 1) 긍정적: 생명의 근원 →(나)의 ‘물’
- 2) 부정적: 죽음의 환경 →(공무도하가)의 ‘물’

※<불>의 이중성

- 1) 긍정적: 부활, 강력한 힘, 열정, 포용성 →(가)의 ‘불’
- 2) 부정적: 재앙, 소멸, 죽음, 고난의 환경 →(나)의 ‘불’

☞<물>, <불>과 같이 대립적인 이중성을 지닌 시어는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④

(가)의 비유적 표현들:

아랫도리→(의인법) 다박술 깔린~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엎드린→(활유법) 산(山),~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의인법)

~장차 너희 숫아난 봉우리에, 엎드린→(활유법) 마루에,~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의인법) 뛰는 날을~

(다)의 비유적 표현들: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직유법)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의인법)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1문단]

*눈은 조용하다.→(활유법)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의인법)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2문단]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의인법)~사색이 날개를 펴고→(활유법)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의인법)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직유법)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직유법)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이 있긴 하지만 그를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가)는 화자의 상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과거가 아닌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것에 가깝다.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상상) ☞**미래지향**

*‘함께 즐기 뛰는 날을 밟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상상)

☞**미래지향**

☞(다)는 ‘눈과 눈 덮인 세계’에 대한 현재의 사색이지 과거의 체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체험>과 <회상>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비유법>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 1문제 이상 꼭 출제된다.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자!

※<비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1)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2)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2016 수능: 의인법 VS 활유법 관련 문제 출제됨]

※<수사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1)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 2)강조법: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열거법
- 3)변화법: 도치법, 설의법, 인용법, 대구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한 것도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도 없다.

※점층법과 점강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 ㄴ.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 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열거(나열),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 눈, 눈이 내린다!) ☞운을 형성!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운을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1항목 후 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다)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낮으니 나중 순위로 볼 것을 권한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가) 혹은 (나)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으니 이를 고려하고 이 둘을 나중에 보는 것은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닭은 꿀)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는 <바람>이 <정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지 ①, ③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 ①~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실제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①, ③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5. <현대시>

#1항목 후순위의 법칙 #원인+결과 #설의법 #3점 #감상
#의문문_설의법_문답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4%	①	②	③	④	⑤
	8%	10%	4%	74%	4%

◆정답 ④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원인)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결과)

⇒(가)의 ‘내 마음’이 ‘똥똥 구름을 타’는 것[결과]은 ‘큰 산’, ‘그 넘엇 산’이 안 보이기[원인] 때문이다.

♣고차원의 사고력과 논리를 중시하는 수능 국어에서는 어떤 일에 대한 이유, 근거, 원인 등을 따져보는 테마의 문제가 중요하게 자주 출제된다. 위 문제의 경우도 결국엔 문학 문제이지만 문장의 <원인+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정답의 핵심 단서이다.

⇒(가)에는 화자의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큰 산’, ‘그 넘엇 산’을 바꿈>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계>이다. 그리고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원하는 것에 가깝다.

(변화 전: 가문 어느 집에서도 좋아하지 않음)→
(변화 후: 가문 어느 집에서도 좋아함)

☞자연물이 되는 것(물이 되어)을 가정하는 것은 있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자연 합일>은 주로 고전 문학에서 속세를 떠난 이후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오답 풀이

①

(가)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죽(→지루함)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강력한 힘과 열정이 있는 세계 지향)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씹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세계 지향)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죽하’다고 부정적(지루함)으로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강력한 힘, 열정)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변화 전)(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며,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변화후)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설의법: 기다리겠다!)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침묵→화염)를 나타내는 것이다.

※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설의법>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수능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③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가정)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설의법: 좋아한다!)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소망)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흐르는 물이 되어)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⑤

(가) 1) **핏대를 잊은 여우 이리 동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나)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2)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가)의 여우, 이리가 사슴, 토끼와 함께 어울린다는 것1)은 먹이 사슬에 의한 생존의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2)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1항목 후 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다)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낮으니 나중 순위로 볼 것을 권한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③이 각각 (가) 혹은 (나)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으니 이를 고려하고 이 둘을 나중에 보는 것은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6. <현대시>

#공통 선지의 법칙 #선지 오류의 법칙 #이중성 #긍정_부정 #상승_하강 이미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2%	2%	2%	92%	2%

◆정답 ④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물의 생명성)

⇒물은 생명성을 나타내기에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는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꺼짐)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우르르>: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거나 천둥이 울리는 소리’

▶<생명성, 생동감, 활기참, 역동적>은 같은 맥락으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이다.

※<물>의 이중성

- 1) 긍정적: 생명의 근원 →(나)의 ‘물’
- 2) 부정적: 죽음의 환경 →(공무도하가)의 ‘물’

※<불>의 이중성

- 1) 긍정적: 부활, 강력한 힘, 열정, 포용성 →(가)의 ‘불’
- 2) 부정적: 재앙, 소멸, 죽음, 고난의 환경 →(나)의 ‘불’

☞<물>, <불>과 같이 대립적인 이중성을 지닌 시어는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오답 풀이

①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물의 생명성) ☞**긍정적**

⇒물은 생명성(긍정)을 나타내므로 ㉠은 물의 결핍감(부정)보다는 충만함(긍정)을 나타내는 것이 더 가깝고 ㉡은 불이 소멸(부정)하는 상태라 충족감(긍정)과는 거리가 멀다.

▶시어 이미지의 긍정 혹은 부정 판단은 선지의 정오를 구별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②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물을 지향) ☞**긍정적**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물의 생명성) ☞**긍정적**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불’은 부정적 환경을 나타냄)
 →(현재 우리의 상황은 부정적임)

⇒<물>은 긍정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물의 한 모습인 ㉠은 비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며 부정적 의미의 <불>이 ‘소멸’, ‘꺼짐’의 이미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는 편이 더 가깝다.

*<푸시시>: 불기가 있는 물건이 물 따위에 닿을 때에 나는 소리

▶불(부정적)+꺼지는 소리(부정적) ⇒결국엔 긍정적 상황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긍정적 상황)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긍정적 상황)로 오라.

③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물을 지향) ⇨긍정적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불’은 부정적 환경을 나타냄)
→(현재 우리의 상황은 부정적임)

⇒<물>은 생명성(긍정)을 나타내므로 물의 한 모습인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을 반영하고, <불>은 부정성을 나타내므로 그것의 소멸인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안도감>을 반영하는 편이 더 가깝다.

▶불(부정적)+꺼지는 소리(부정적) ⇒결국엔 긍정적 상황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긍정적 상황)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긍정적 상황)로 오라.

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이 아닌 하강의 이미지이다. 그래서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활활 타오르는 <불>은 상승의 이미지이지만 ㉡은 꺼져가는 불이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는 일단 아니고 뚜렷하게 불의 움직임을 하강이라고 보기에 더 어렵다. 다만, 불의 꺼짐은 부정적이고 하강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이 공통될 뿐이다.

※<상승 VS 하강>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자.

- 1)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 2)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주로 소설에서 비가 내리는 배경은 부정적 환경이지만 지문(가)의 비는 긍정적으로 사용됨에 유의하자.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닮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④, ⑤는 (㉠:움직임, ㉡:부정적)으로 공통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은 불이 소멸하는~(정답)
- ⑤ ㉠은 상승하는 ~㉡은 하강하는~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알아두면 좋을 꿀 팁★

♣선지 오류의 법칙!

⇨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국어 지식 혹은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오류가 확실히 있거나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 위 문제의 경우,

⑤㉡<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자연 현상인데 이를 상승하는 것으로 보는 선지 ⑤는 상식적으로 오류이다. 만약 위 문제가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이라면 ⑤는 지문과 상관없이 100% 정답이 된다.

♣이런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되며 수능에 자주 출제 되었다.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2015 수능의 정답 선지)

→UCC 제작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는 상식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어 선지 오류임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015 6월 평가원 정답 선지)

→ 말하기의 종류인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기의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선지 ⑤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2015 수능 정답 선지)

→ 독서 할 때뿐만 아니라 작문을 할 때에도 배경 지식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오히려 작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보고 배제하는 경우를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 매우 어려워 부정형 발문에서 거의 정답에 가깝다.

37. <수필>

#공통 선지의 법칙 #태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9%	①	②	③	④	⑤
	3%	3%	89%	4%	1%

◆정답 ③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1)<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호뜻한 내용을 갖게 한다.**→(‘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 고요 속에서 2)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아 재발견) [3문단]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2)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1)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1)은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2문단]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 1)을 보지만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미안함: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보통 후회나 반성을 동반)

▶연민이나 미안함의 의미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낱말의 뜻을 사전을 찾아 볼 여유는 없겠지만 해설에 나온 것만이라도 잘 익혀두자!

②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1)**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끝문단]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은 ‘철학가’의 모습이 자연스럽다1)고 한 것뿐이지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아니다.

④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1)**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끝문단]

⇒글쓴이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를 언급한 것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에 잠기게 되는 것1)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1문단] →(따뜻한 인심)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나타난 것도 없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을 정도로 따뜻한 인심을 엿볼 수 있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얕은 꿀)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②, ③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공통된다.

②~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실제 정답)

③~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③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8. <수필>

#보기 제시 #감각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0%	①	②	③	④	⑤
	2%	2%	2%	4%	90%

◆정답 ⑤

<보기>의 조건: 1) <감각+ 정서> 드러냄
2) 사물에 대한 <기억>과 관련

- i. 자갈밭은 포근하다. →(감각+ 정서)
- ii.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기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포근하다>: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촉각) 따뜻하다(촉각+ 정서)

※<감각적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산, 높은 하늘, 빨간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오답 풀이

①, ②, ③
⇒<보기>의 조건 둘 다 해당 없음.

④
⇒1) <감각+ 정서>만 드러냄.
*지식은 차갑다. →(감각+ 정서)

※39~42, 염상섭의 <삼대>

*갈래: 장편 소설
*성격: 사실주의적
*주제: **삼대에 걸친 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등장 인물
조의관: 조씨 가문의 가장. 완고한 봉건 의식의 소유자. 재산을 노린 후취 수원집 일당에 의해 독살당함.
조상훈: 조의관의 아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자 개화주의자. 축첩과 노름을 일삼는 위선적 인물.
조덕기: 조상훈의 아들. 일본 유학생.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상과 행동에 반감을 가진 계급운동의 심정적 동조자. 진보적 자유주의자
김병화: 덕기의 중학동창이자 과격한 마르크스주의자.

*구성
발단: 휴학생 덕기가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 병화를 만남.
전개: 덕기는 조부와 조부의 세 부인을 비롯한 집안의 뒤엉킨 인간관계와 갈등을 목격함.
위기: 조부가 병환으로 위독해지고, 이를 틈타서 새 조모 수원집이 모략을 꾸밈.
절정: 조의관이 사망하자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집안의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주의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됨.
결말: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향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생각에 빠짐.

*감상의 길잡이
☞ 당대의 사회사를 한 가문의 삼대기를 통해서 보여준 대표적인 가족사 소설이다. 세 세대 간의 대립을 공존시켜 놓아 부의 주변에 서식하는 기생적 인물들의 타락상과 구세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삶에 날카로운 비판으로 던지면서, 덕기와 병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에 시대적 과제 해결의 희망을 걸고 있다. 삼대에는 두 갈래의 삶이 존재한다. 하나는 조의관 부자가 실현하는 현실추수적인 소비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김병화와 필순을 통해 보여지는 현실 반체제 지향적인 이념적인 삶의 양상이다. 삼대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어떻게 몰락하고 어떤 의식을 지니며, 당시 청년들의 고뇌가 어떠했는가를 사실적인 수법으로 파헤쳐 인간 심리를 미묘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39. <현대소설>

#일탈 선지의 법칙 #이해 #설의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7%	67%	4%	11%	7%	11%

◆정답 ①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1)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 즉→(남의 족보에 부정하게 이름을 올림)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물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측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2)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3)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A중반]

⇒상훈의 부친이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고 한 것은 부정한 일1)이 커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2)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3)이기 때문에 족보 올리는 값을 줄여서(3~4천원→1천원) ‘다행’이라고 여기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상훈)같이 1)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부정적 행동) 하는 것이 2)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설의법: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아니다!) [A후반]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부정적 행동을 하기1) 위함이므로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2)고 본다.

③

*“1)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1)

④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1)<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하게 아납니까?”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B중반]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함.1)

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려셔도 못 드릴 것은 아납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설의법: 드릴 수 없다!) [B중반]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함.

★대단히 유용한 팁★

♣일탈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

*①번 선지가 좀 튀는 이유, 그리고 높은 정답의 가능성!

선지의 서술어 부분을 긍정적-부정적으로 구분하면,

- ①~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긍정적) (☆정답)
- ②~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부정적)
- ③~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부정적)
- ④~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부정적)
- ⑤~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부정적)

☞①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로 ①은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이다.

▶ 매우 주관적인 문학 문제를 객관식의 뚜렷한 정답을 설정하려다 보니 위와 같은 일탈 선지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40. <현대소설>

#공통 선지의 법칙 #관용구 #싱거운 문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8%	①	②	③	④	⑤
	7%	2%	7%	6%	78%

◆정답 ⑤

*①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

☞관용구 <입을 막다>: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의 뜻만 알면 문맥을 알지 못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굉장히 싱거운 문제)

▶관용적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로 속담, 성어 등을 포함한다.

◆오답 풀이

①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1)“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B초반]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고 있음.1)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를 구별 판단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②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하는 것은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하기 때문인 것이지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③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1)부자 충들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①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아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들을 피하기 위해서1)이다.

④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지문초반]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치를 수 없으면 두고 가라)은 이미 했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닭은 꿀)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다.

④~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⑤~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닭은 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닭은 꿀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41. <현대소설> ☆오답률 6위☆ (평가원 4개년 중 26위)

#갈등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57%	①	②	③	④	⑤
	9%	23%	57%	4%	7%

◆정답 ③

[A]: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아버지의 잘못을 말함)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아들의 잘못을 말함)

[중략 부분의 줄거리]~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B]: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냐?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아들을 나무람)

⇒[A]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서로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B]에서는 아버지가 세간 값을 치르지 않는 아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1)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B]: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냐?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아들을 나무람)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1)하며 [B]에서는 세간 값을 치르지 않는 아들을 나무라는 것이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치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
☞아버지의 세간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치부>로 보긴 어렵다.

②

[A]: 1)“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족보 사는 것에 불만)

[B]: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2)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A]는 족보를 사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제기1)하고 [B]에서는 아들이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동정>2)한다.

☞[B]에 <동정>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②가 적절함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④

[A]: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아들의 간섭)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아버지의 못마땅해함)

[B]: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아들의 간섭)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냐?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아버지의 못마땅해함)

⇒[A]와 [B] 모두,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⑤

[A]: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아버지의 행위 문제 삼음)

[B]: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아버지의 행위 문제 삼음)

⇒[A]와 [B] 모두,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짜장,짬뽕 무엇을 먹지)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소설은 인물의 갈등이 시작되어 끝나기까지의 과정이기에 소설 지문을 대할 때에는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자!

42. <현대소설>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30위

#보기 제시 #3점 #성격 #시점 #갈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61%	①	②	③	④	⑤
	7%	9%	14%	9%	61%

◆정답 ⑤

<보기>: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시점’의 혼합 형태)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체면 중시)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뿔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주도면밀함)

☞(영감의 시선으로 ‘아들’과 ‘자신’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함)

㉡(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상훈이)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덕기는)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상훈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덕기는 생각)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상훈의)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상훈의 상황에 대한 덕기의 인식)

☞(덕기의 시선으로 상훈의 상황 이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체면 중시, 주도면밀함)을 알 수 있으며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동정심과 이해심이 강함)와 서술 대상인 상훈(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의 성격이 드러난다.

※소설의 시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 위 지문은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시점의 혼합 형태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특이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으로,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는 해당 문장 서술어의 주체를 잘 파악하면 된다.

☞ ㉠은 서술어 '생각하였으나'의 주체가 <영감>인 것은 쉽게 파악된다. 하지만 ㉡은 서술어의 주체가 생략된 표현이 많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다. 생략된 주체를 복원해 보면,

㉡(?)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상훈이)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덕기는)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상훈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덕기는 생각)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상훈의)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상훈의 상황에 대한 덕기의 인식)
☞(덕기의 시선으로 상훈의 상황 이해)

<보기>: 「상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 결국엔 <덕기>의 시각에 의존하여 <상훈>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오답률 높은 소설 문제의 사례들

- 1) 문장이 길어서 서술어의 주체를 헛갈리는 경우
- 2) 생략된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 3) 대명사(이, 그, 저)로 제시된 인물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 소설 지문에 <인물 명>이 나오면 헛갈리지 않게 적절한 표시(□, △, ○)를 해두는 것이 좋다.

②
.....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1)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체면 중시의 의식) ☞(원인)
- 2)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뭉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주도면밀한 행동) ☞(결과)

㉡3(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상훈이)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4(덕기는 생각)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상훈의)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상훈의 상황에 대한 덕기의 인식)
☞(덕기의 시선으로 상훈의 상황 이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영감>의 의식1)과 행동2)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4)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내적) 갈등3)이 드러난다.

▶ 비문학이 아닌, 문학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요소가 출제되었다. 이만큼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항목은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시험에 꼭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다. 지문과 선지에 인과 관계가 뒤바뀌지 않게 꼭 표시해 두어야 한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 1)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2)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 소설은 인물의 갈등이 시작되어 끝나기까지의 과정이기에 소설 지문을 대할 때에는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자!

③

㉠<영감>은 1)아들(상훈)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상훈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2)오히려 나온 일이라고도 (덕기는 생각) 하겠으나,

⇒㉠에서는 영감의 시각에서 아들(상훈)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1)하고 ㉡에서는 상훈의 상황에 대해 오히려 나온 일2)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아 둘 다 상훈을 낮게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자체만으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두 인물은 공통성(㉠:영감은 상훈의 말에 옳다함, ㉡: 덕기는 상훈을 동정함)이 보인다.

④

㉠1)<영감>은 아들(상훈)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
2)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영감 자신의 행동 설명)

㉡~(상훈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3)오히려 나온 일이라고도 (덕기는 생각) 하겠으나,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1)가,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3)가 각각 한 번씩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진다는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평가가 달라지려면 최소 긍정 평가에서 부정 평가로 혹은 부정 평가에서 긍정 평가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에서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이후 반대 맥락의 평가가 나올 듯하지만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아닌 영감 자신의 행동 설명2)이 나온 것이다.

★유용한 팁★

♣선지 오류의 법칙!

☞선지 ③의 일부는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자체적인 오류가 있다.

③~그와의(외적) 심리적인(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심리적인 갈등은 내적 갈등,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갈등은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이 둘은 거의 명확히 구분되기에 ③은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오류 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위 문제가 부정형 발문이라면 ③을 정답으로 확신해야 한다.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되며 이런 선지가 수능에 자주 출제 되었다.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2015 수능의 정답 선지)

→UCC 제작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는 상식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어 선지 오류임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2013 수능 정답 선지)

→'소리'와 '바람'의 속성은 장애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이 있다. 이를 자유의 의미와 대비된다고 표현한 선지 ③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015 6월 평가원 정답 선지)

→ 말하기의 종류인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기의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선지 ⑤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커뮤니티 후기”

*이거 쉬었다는 애들 진짜 미친 거지?
삼대라는 소설 작품...솔직히 내용 파악 하나도 안됨..ㅇㅈ?
/카운트다운스타트

↳허세임 ㅇㅇ거기가 뭐 특목고 이런데 아닌 이상
/킹갓쏘블리헤

↳염상섭 작품은 비문학 풀듯이 /xbxhbsbejwj

↳난 진짜 어려웠는데 ππ/lur0680

↳삼대가 유명한 작품이어서..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두 세 번은 공부했다고 함 그러면 쉽겠져 /말랑보리

↳소설 중엔 어려운편이 맞는 듯 /육군4관생도 77기

↳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아니야?? /아휴휴휴휴π

↳앵간해선 허세아님? 주변에 1등급 맞은 애들 나 포함해서 다 어려웠다고 킬러수준이라 그러던데 /한양대 소프트웨어

↳내 친구 삼대 존나 쉬었다고 나대다가 내가 그 시험지 보니 절반은 틀리던데 ㅋㅋㅋㅋ /주우우우웅작

↳삼대가 객관적으로 쉬운 난이도는 아닌데..그 쉽다고 말한 사람들은 전체 내용은 알려나 /clclcl

↳ㅋㅋㅋㅋ삼대 ㅋㅋㅋㅋ작살.. /민썸

↳이미 배웠던 거라 ㅋㅋ 배운 사람 아니면 어려울걸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뭘 개손린지...몰랐어서요ㅋㅋ /국어표준어

↳안 배웠는데 감으로 맞음ππππ큐 /17학번 미대여신

↳삼대 솔직히 가계도 그러서 인칭 파악만 하면 비문학 킬러보다는 쉬움. 물론 문학 중에서는 꽤 높은 난이도긴 하지만..

/ㅎㄷ대캠공17

Q. 6평 삼대는 어디가 어려웠었나요?
어디서 읽었는데 모르겠지만 읽은 기억이 있어 쉽게 맞췄는데
어디가 어려웠나요? 저도 그 관점으로 다시 보고 싶음
/갓철회갓상모갓홍철사대

↳지문이요 /국어는극혐입니다
↳삼대란 소설자체가 참보면 뭘 내용인지.. /현역은강하다
↳일단 조부 부 자의 관계 파악하는 데에 좀 걸림 /KUDO
↳그냥저냥 지문 읽었는데 문제의 보기를 보니 내가 모르는 인
물이 있었음 /아아후후
↳읽어 봤던 거라면 쉽겠죠 /죽은지식의사회
↳인물 관계 다 파악해도 문제가 어렵던데 전날 삼대 읽고 갓었
는데 /이지홍
↳수능이 아니라 모평에 나와 줘서 너무 고마움 /Clearlove
↳전 글 내용 자체가 너무 난해 했었어요 /hedge
↳삼대 처음 본 저로서는 확실히 세사람의 관계 파악하는데 시
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설대카이스트생
↳친구한테 삼대 나올 것 같다했는데 진짜 나와서 시험장에서
제가 흥분함ㅋㅋㅋㅋ/국내산석유
↳그거 처음 읽어보면 일단 이 새끼들 가족 관계가 뭐야 도대
체... 애가 아빠? 그 럼 애는 아빠의 아들? 아들의 아빠의아
빠? 뭐라는겨 쌍ㅂㅂ 전 작년 7월엔가 나왔을 때 삼대 참
봐서 저러고 있었음ㅋㅋㅋ /의대으대의대

Q. 6평 모의고사 삼대 이해가 대체 안 되네요..
님들 진짜 죄송한데 소설에서 누구누구가 말했다 라고 적혀 있
으면 그 뒤에 말이 누구누구한 말이에요 그 앞말이 누구누구가
한 말이에요? /eunji1553

↳화자가 말한 내용의 앞부분에 혹은 뒷부분에 위치할 수 있으
니 문맥으로 따져 봐야한다.

- 1)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화자가 앞부분에 위치)
- 2)"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화자가 뒷부분에 위치)

*이번 6평 국어에서 소설 '삼대' 나만 어려웠음??
ebs 연계라고 하던데 난 미리 안 봐뒀서..시험 현장에서 읽을 땐
무슨 내용인지 말 몰랐음 /미나미 코토리

↳ㅂㅂ 삼대 4문제 다 틀려서 91임 ㅂㅂ /parksy7932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했음..그거 ㄷㄷ /도치
↳난 봤는데도 어려웠음 맞추긴 했는데 겁나 고민하고 풀었음
/가랴소
↳난 삼대 안 배웠는데 감으로 다 맞음 개이득
/17학번 미대여신
↳그냥 그저 그랬음 비문학 첫지문이 ㅈㄴ 어려웠음 /몽상하는자

↳한글 아니야 그거 /반갑도연
↳삼대는 내용 알아도 어렵던데 /다라보치
↳나도 삼대 읽다가 멘붕..ㅋㅋㅋㅋ어려웠어ㅍㅍ /뚜벅뚜벅
↳ㄹㅇ평가원 인성 조짐 /aiallex
↳난 2부 아들 아빠인것도 몰랐음 ㅋㅋㅋ강 땀 사람인줄 ㅋㅋ문
제 풀면서 어리둥절 /기훈교전도사

*삼대 다 틀린 사람 있나
충격적이다 정말 /건대 의상디자인

↳삼대 내용 이해 잘못해서 1개 틀림;통수 맞은 느낌 /s2soos
↳삼대ㅋㅋㅋ덕기가 상훈이 아들인거 4번 읽고 이해함ㅋㅋㅋ
↳삼대 다 틀림ㅋㅋㅋㅋㅋ개멘붕 /FT SN
↳아 시바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나 삼대 오늘 처음 봐서 정미
소가 여잔 줄 앎 ㅂㅂㅋㅋㅋㅋ중략에 정미소를 차지한다
그러기에 미친놈이 여자에 미쳤군 이지랄 했음 존나 심지어
뒤에 정미소 장부라길래 누구 리스트 막 이딴 건 줄 알고 뭐
하는 여잔가 했음 ㅋㅋㅋ /헤테
↳문학 수특에서 연계된 거라 인물 관계는 빨리 찾았는데 만약
안 풀었으면 못 찾았을 듯 /별발10

*국어 삼대 그거 배운 애들 있지 않음?
1학년 땐가 2학년 때 교과서에서 봤던ㅋㅋ쌤이 헛갈릴 것 같다
면서 인물관계도 그려줬었는데 그거 생각나서 빨리 풀었다.
/금요일

↳1학년 때 볼때도 삼대에서 막혔는데 이번에도 2문제 틀림 ㅍ
ㅍ원소린지 이해도 안되서 시간 다 잡아먹고..
/연대의예과11학번
↳배웠는데 한 두 개 맞음 ㅋㅋㅋㅋ심지어 거기서 시간 다 씀
/ㄷㄴㅁ
↳진짜..5번은 읽은 듯..제목 아니었음 끝날 때까지 몰랐을 거다
/xmdnlstmv3

Q. 6평 삼대 39번 문제 3번 선지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
다) 지문에서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 하시기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가요?
이 문장이 중의적인 것 같아서요...할아버지가 반대했다고도 해석
이 되지 않나요? /칙칙폭폭

↳아 6평삼대 다 애매함 수능에 안나온게 다행ㅋㅋ/gustkd1120
↳맥락을 봐야죠. /러빙

↳해당 지문만을 본다면, 당연히 중의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화
는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므로 '상훈이 반대하는 것'으로만
해석된다.

※43~45, 조위한 <최척전>

*갈래: 고전 소설
 *성격: 사실적, 불교적, 낭만적
 *주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구성
 발단: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결혼, 만아들 몽석 출생
 전개: 전란으로 헤어져 각기 중국과 일본으로 이별하는 최척과 옥영
 위기: 부부 안남 항구에서 감격적인 해후, 부부 중국 정착, 몽석 출생과 흥도와 옥영의 결혼, 최척의 출전으로 다시 헤어짐
 절정: 포로 수용소에서 큰아들을 만난 최척, 탈출하여 귀국
 결말: 옥영 수로로 귀국, 최척 일가의 상봉

*감상의 길잡이
 ≡ 사실주의적 표현으로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역사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소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3. <고전소설>

#이해 #고전 소설의 특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0%	①	②	③	④	⑤
	10%	80%	5%	3%	2%

◆정답 ②

1)“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옥영)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옥영)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지문중반] →(옥영에 대한 최척의 기억)

2)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남편에게서)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최척)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지문중반] →(최척에 대한 옥영의 기억)

3)“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최척)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최척+옥영)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지문중반] →(최척과 옥영의 재회)

⇒두 인물(최척, 옥영)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1~2)을 매개로 하여 재회가 이루어진다.3)

▶고전 소설에서 사랑하는 두 인물의 (첫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은 흔한 패턴이다.

◆오답 풀이

①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1)“내(두홍)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2)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3)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지문중반]

⇒최척과 옥영의 재회는 다른 이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척이 직접 혼자 나선 결과3)이다. 다른 이(두홍)의 도움으로 재회가 이루어질 뻔1)했으나 주의의 권유2)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또한 최척과 옥영의 재회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두홍이나 주우는 동포(조선인)가 아니라 중국인들이다.

▶필연적이나? 우연적이나?를 구별 판단하는 것은 국어 시험에서 종종 등장하는 테마이다.

※고전 소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ㄱ.비현실적인 요소 多,
- ㄴ.사건의 우연적 전개,
- ㄷ.서술자의 개입 등

③

1)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걱정) [지문중반]

2)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동정) [지문중반]

⇒최척 주변인들이 최척을 걱정1)하고 동정2)하는 등 서로 간의 긍정적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④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1)그(옥영)가 아내인 것을 몰랐습니다.”~[지문후반]

⇒주변 사람(돈우)이 옥영을 남자로 잘못 안 사실1)은 있어도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재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⑤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지문후반]

⇒주변 인물들의 의구심을 유발하기는커녕 재회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벽찬 마음에 울고 있다.

44. <고전소설>

#시간적 배경 #긴장과 이완 #공동 선지의 법칙 #갈등 #현실성의 정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1%	① 4%	② 5%	③ 6%	④ 4%	⑤ 81%

◆정답 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지문중반] →(긴장감 조성)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지문중반] →(긴장감 해소)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아내의 시,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을 맞이하면서 아내가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두 사람이 재회하는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소설의 <긴장>과 그 해소인 <이완>

☞‘두 사람이 재회하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벽찬 상태니까 오히려 더 <긴장>상태가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소설에서 사용되는 긴장과 이완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소설의 <긴장>과 <이완>은 대개 다음의 상황에 주로 나타난다.

1)긴장: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직전의 상황 →(서사적 긴장)

2)이완: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의 상황

◆오답 풀이

①

⇒<밤>은 최척과 옥영이 피리소리와 시로 소통하는 배경인 것이지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문제(이별 상태)가 해소되는 시간이다.

▶비현실적 요소가 많은 고전 소설에서 초월적 존재나 그 배경과 관련된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초월적 존재 및 초월적 배경>관련 제시문

*2015 수능 <보기>제시문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산문 문학의 현실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자!

- ㄱ.설화: 초(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ㄴ.고전 소설: 초(비)현실적인 비중이 높음.
- ㄷ.현대 소설: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ㄹ.수필: 완전한 현실적인 것

②

⇒최척과 옥영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밤의 상황>과 결국엔 서로 만나게 되는 <아침의 상황>을 위기에 처하고 위기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 두 사람의 <만남 직전>과 <만남 이후>의 상황
- 2) <위기>와 <위기를 벗어남>

☞둘 다 긴장감을 동반하고 긴장감이 해소되는 과정의 공통점이 있지만 <위기>는 인물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남 직전>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다.

③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1)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지문중반]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2)강독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밤>에 새로운 계획1)이 구상되고 <아침>에 계획이 실행2)된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 혹은 개방적 공간의 특징이 드러난 곳은 없다.

④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3문단]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짐)

⇒<밤>은 시를 들은 이후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졌기 때문에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아내와의 만남으로 해소되고 있다.

☞갈등을 누군가와 대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이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심리적 갈등으로 고민, 걱정, 후회, 아쉬움, 그리움 등 다양한 상황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예로 들 수 있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소설은 인물의 갈등이 시작되어 끝나기까지의 과정이기에 소설 지문을 대할 때에는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자!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닭은 꿀)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②, ⑤가 밤에는 무엇이 형성되고 낮에는 무엇이 해소되는 점이 공통된다.

②밤은~위기에 처하고, 아침은~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⑤밤은~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45. <고전소설>

#감상 #3점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9%	4%	69%	12%	6%	9%

◆정답 ②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지문중반]

→(최척은 옥영과 함께 있을 때 옥영의 시를 들은 적이 있음)

⇒옥영의 시는 최척과 함께 있을 때에 과거에 이미 지어진 것이지 최척과 헤어진 후 이산과 유랑을 계기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옥영은 최척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 때문에 상황을 원망하는 듯, 최척에게 호소하듯 시를 읊고 있는 것이지 시가 처음 창작된 계기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이산과 유랑 체험>이 (최척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시를 처절하게 읊고 한숨까지 내쉬게 함.

(*보기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음)

◆오답 풀이

①

<보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지문초반]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餞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1)“4년을 함께(돈우와 옥영)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지문후반]

⇒‘4년’ 동안 함께했다는 돈우의 말1)에 따라 옥영은 4년 전부터 유랑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지문의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기 때문에 이에 4년 전은 1596년이 된다. 1596년은 임진왜란(1592~1598년)에 속하기 때문에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 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실제성은 실제 일이 벌어진 시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③

<보기>: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배트남)에 이르게 되었다. [지문초반]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지문중반] →(조선말: 옥영과 최척의 만남 계기)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지문중반] →(조선의 곡조: 옥영과 최척의 만남 계기)

⇒지문의 공간적 배경은 외국(배트남)으로 원하지 않는 타향살이에서는 고향과 관련된 것이 그림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은 외국에 있는 최척 부부에게는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옥영과 최척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④

<보기>: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1)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2)(최척의)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3)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지문중반]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2)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3)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1)을 보여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보기>: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1)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차마 2)어떻게 그(옥영)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3)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餞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지문후반]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2)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3)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1)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커뮤니티 후기”

*6평 때 ebs 산문 (최척, 삼대) 보고 시험 치신 분들 6평에 ebs 산문 최척전, 삼대 나왔는데 삼대도 초반부만 같고 지문의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산문 같은 경우도 연계출제가 많이 체감되고 도움이 되었나요? 현재 운문 현대, 고전 ebs중이고 산문은 기출을 풀지 ebs를 할지 고민이되네요.. /h wangc

↳산문은 솔직히 원작 자체들이 다 길기 때문에 다른부분 나올 확률이 높죠 ㅋㅋ /설대카이스트생

↳ebs에 실린 작품들의 전체적 줄거리를 알아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KUDO

↳최척전은 줄거리 대충 알아서 지문 다 안 읽었어염 /너와나만의시간

↳아직 기출 산문들을 다 풀지 못해서 ebs를 지금 부터 시작해서 전 작품 다볼지 기출만 풀다가 더 후반부 가서 인강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들만 보고 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문의 일부만 겹치고 다른 부분이 나와도 연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hwangc

↳인물하고 줄거리만 알아도 독해속도 차이나요 /35Vht9PJFRYIOf

*6월 모의 최척전 슬프지 않나요 사유여 잘가시게!! 하는데 울컥했음 /tigan

↳제 점수가 더 슬퍼서 그닥.../김가얏

↳크~남자다!! 하면서 마음의 박수를 짹 짹 쳐 드렸습니다 /창조전력라이츄

↳해피 엔딩이라서 뭐 그저 그랬어요 곡성때문에 그런가 ㅋㅋ /아라오라

↳치고나서 우울함 /마인컨

↳풀 때 타임어택으로 다급해서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윈 없었던.. ㅠ흠 /난다꼬야끼가쵸야

“2017 6월 모의고사 후기”

★<로튼토마토>님의 후기

전 어려운 수능은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해 푸는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었다면, 이번 평가원은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내 선지를 찾아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천천히 생각해가며 풀었더니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최척전 두문제는 찍었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전반부는 정확하게 푼 덕에 93점이 나왔지만 불안하긴 합니다. 문제 푸는 방식을 바꿔야할지.. 시험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인터넷수능>님의 후기

6평 국어 시간문제. 6평 국어 푸실 때 시간 안 부족하셨어요?? 화작 푸니까 9시쯤이고, 화작문 다 푸니까 9시 15분이었는데;;; 33번 비문학까지 푸니까 9시45분 ㅋㅋㅋ미친 다행이도 비문학, 문학 지문수가 줄어서 완전 폭망하진 않았지만 현대소설 삼대는 읽지도 못하고 종 쳤네요 ㅠㅜㅜ삼대 4개중 1개 찍어서 맞추고 앞에 비문학 한개 틀려서 91....6평 다 푸신분 있으세요?? 어떻게 다 풀어요? ㅠ/베베뽀

↳45번까지 풀고 시계 보니깐 4분 남았더군요..ㅋㅋ비문학 한 개 삼대 두개 틀려서 91으로 님이랑 결과는 같네요 /비율관계
↳원래 국어 풀 때 20분정도 남는데 6월에는 거의 안 남았어요 ㅠ 딱 마킹하고 헛갈린 몇 문제 다시 볼 시간정도..?/khukms
↳항상 빼곡하게 채워서 푸는데 이번에도 딱 삼십초 남기고 마킹 끝.. 화작은 그래도 쉬웠던 것 같아요.
비문학 한개 97점 /인터넷수능
↳그냥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보조용언문제 별표치고 넘기고 쪽 푸니 15분쯤 남아서 보조용언 문제에 때려박았죠ㅎ
/CAKAO_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는데, 저는 중세국어 지문 있는 문법 쪽에서 좌르륵 지나가서 91나왔어요 ㅋㅋㅋ/Datura

★<사대경영17학번>님의 후기

국어98.
신경망부터 멘붕 왔는데 그래도 멘탈잡고 다행히 잘 풀었네요 12번 틀렸네요 신유형이라 당황해서...는 변명이고 강 실력이 모자란거겠죠. 비문학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쿨하게 넘기고 돌아갔던게 오히려 좋았던 거 같아요.

★<야오오웅>님의 후기

저보다 국어 잘하시는분들 동냥(?)해주시는 쌤 치고 조언 부탁드릴게요TT일단 점수는 73이에요. 제가 국어를 화작 먼저 풀고 문학, 문법, 비문학 순으로 푸는데 이번에 볼 때도 똑같은 순서로 풀었는데 비문학을 가장한 문학과 삼대에서 살짝 시간을 뺏겼더니 한35분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문법을 봤더니...이게 뭐람... 그 비문학 중세국어는 못 풀고 나머지 문법다 풀고 이과니까 존나 자신있게 신경망...그래도 3개는 맞았어요ㅋ 그리고 음악에서 시간 다 뺏기고 다 틀리고 유비추론은 읽지도 못했고...어쨌건 제가 독해력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이미 늦은 거 같기도 하고.. 글을 읽으면 정보가 하도 쏟아지다보니 이게 연결이 안 된다 해야 하나요 그냥 머릿속이 뒤죽박죽되고 시간은 없어지고 쪼리고 하다 보니 결국 망 테크.. 맨날 이래요 올해 3월부터 계에 속.. 미치겠어요..ㅠ주위에 이런 거 조언해 줄 친구 들도 없고 선생님들도...영..ㅋㅋ 결국 오르비에 질문하네요. 전 이제부터 국어를 어떻게 훈련하고 대비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당 ㅠㅠ

★<크아아아아앙>님의 후기

화작: 무난무난
문법: 응??? 이건 뭐지...??? 원래 제시문 안보고 바로 선지보고 푸는데 안풀려서 당황크리 갑자기 멘붕와서 글자들이 튕겨 나가기 시작결국 12번 틀림..
퍼셉트론: 문법의 충격이 가시질 않음 글이 잘 안읽힘 그냥 기계적으로 글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모르겠음..18번 틀림..
ㅠ
유비논증: 지문은 무난무난 하지만 문법에 이은 퍼셉트론의 충격으로 머리가 여전히 안돌아감20번 틀림
고려 속요: 뭐지 이건????????? 설마 비문학과 문학을 짬뽕시킨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건가.. 또 당황 읽다보니까 무난무난해서 이때부터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함 동동 가시리!! 다 공부한거다!! 드디어 침착해짐
음악: 소설인줄.. 웰케 길어요 ㅠㅜㅜㅜㅜ정보량이 어마어마해서 머리가 너무 아팠음6문제가 달려있는 거대한 지문이였지만 퍼셉트론만큼 날 괴롭게하진 않았음

현대시+수필: 향현은 처음본거 우리가 물이 되어는 어디서 많이 보던거 그냥 무난무난하게 품 하지만 다 풀고 나니까 12분이 조금 안남음

이때부터 개당황+머리가 사고를 멈춤 뒤에 보니까 삼대랑 최척전 내가 공부한데랑 다른부분이지만 일단 줄거리는 대충 알고있으니 지문읽는건 포기하고 문제를 풀자!! 39번(삼대 내용 이해문제) 44번(최척전 밤과 아침의 기능) 틀림

총점 90..뭔가 되게 많이 틀렸는데 2점짜리만 틀려서 다행히 90 밀으론 안내려간 듯 앞부분에서 너무 당황해서 엄청 버벅거리다가 시간 모지람

★<Revenge>님의 후기

이번 국어 알고리즘
1~10 화작문 좀 애매한데 ㄱㅈ네
11~12? 비문학? 문법이네?
13~15 개헛갈림
비문학
인공지능? 알파고 생각하는데...어렵네...유비추론? 흠....고려속요?
비문학 쉬운 거 같은데..아 문학인가...20번 대에 문학이 왜...비문학? 문학? 음악 와 ㅈㄴ 길다...앵 33번? 문학 있어야 하는 자리 아님? 삼대 개헛갈리네 뭐라고 지껄이면서 싸우는겨 ㅋㅋㅋㅋ폭망

★<부천동마스터리>님의 후기

진짜 죽고 싶어요. 6평이 수능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학년 때부터 1등급 놓친 적 없는 국어가 4등급이 나왔어요 71점 초딩 때도 안 받던 71점..ㅋㅋ유비추론 하나 빼고 다 틀리고 오히려 퍼셉트콘이랑 음악은 하나 배고 다 맞고...문학도 연계 틀렸어요 최적전 삼대 다 하고 간 건데 와 진짜..이 모든 원인은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만..ㅠㅠㅠ그 후로 뒤에 보니까 신유형이더라고요 많이 뭐 망했습니다 글자가 똥똥뜨면서 하나도 안 읽히더라고요....나중에 풀어보니까 정확하게 다 알겠더라고요 하아 ㅠㅠ이거 어떡하나요 6평이 수능이라는데 답임 압박 절고...강 복합적으로 노답이네요 총체적난국...진짜 저 4등급가나요...진짜 실력은 아닌데했..

↳이번일을 계기삼아 수능 땀 더 잘보시기를!! /늦4794
↳6평이 수능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마음 잡고 해봐요! /킹rh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능쳐서 현재 서울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6모가 평가원 출제라 6모 망하면 마치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친구들 많은데...그럴 필요 없습니다. 6모가 수능이라는 건 사실 전혀 검증된 바가 없구요..저만 해도 아니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거의 아니였어요. 다만 6모 9모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아내는 것 정도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 사설 모의고사도 자주 치실텐데 하나한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못 쳤을 때는 수능전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찾았다고 생각하시고 보충하세요!저는 극단적으로 아 차라리 수능전에 틀려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아직 회복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초조해하지말고 하던대로만 하세요. 수능은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응원할게요! /ooing

★<의대으대의대>님의 후기

국어는 다들 비슷하셨겠지만 문법11~12에서 1차 멘붕 비문학 첫 지문 19번에서 2차멘붕 비문학마지막지문 길이보고 3차 멘붕 삼대에서 인물관계 보다가 4차 멘붕 ㅋㅋㅋ빨짓해서 2점짜리 일치문제랑 그 유비논증 3점짜리 나갔네요 하 좀 꼼꼼히 볼걸...

★<날아간 지균>님의 후기

이번 국어 어렵기보다는 당황해서 제 실력 못 쓴 분들이 대부분 일듯. 작문 8번 풀면서 옆에 흘끗 봤는데 '잉? 왜 글이 있지?' 하고 당황하고. 문학먼저 푸는지라 넘기는데 20번대에 가시리가 보여서 또 한번 놀람. 마지막으로 예술인줄 알고 아무 생각없이 들어갔다가 버벅거림. 결론은 통수의 통수의 통수

↳파본 확인 할 때 비문학이랑 고전시가 같이 묶여 있길래 '어? 이거 아닌데..'함 /회장
↳고전문법 첫 번째 문제 독해력으로 풀고 두번째 문제 조금 풀고 찍어서 맞춰서 백점이군... 했는데 뒤에서 별표도 안침 문제 우수수 틀림,,, 그만큼 멘탈이 붕 떠있었던 듯..리듬가락 틀리고 ㅋㅋ 딱 90인데 1등급이었음 좋겠어요 ㅠㅠ/선우진